제343회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6월22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계속)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연금공단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계속) ····· 1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연금공단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승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들 3개 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 준비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은 기관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 국민의료를 책임지는 중추적 제도인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중심이 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이들 두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주축으로서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연평균 7.1% 증가하여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인 7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63%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으로 실질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기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분들이 힘을 합쳐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쪼록 오늘 자리가 국민의 행복한 삶, 편안한 노후를 위한 초석을 놓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국민연금공단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시02분)

○위원장 양승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를 받고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부되었으니 기관장님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상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불과 10년 후인 2026년이면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미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뉴비전과 미래전략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행하고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자 중심의 품격 높은 장기요양 등 수준 높은 건강보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이 저출산·고령사회에서도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공단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록 상임감사입니다.

김필권 기획상임이사입니다.

설정곤 총무상임이사입니다.

박경순 징수상임이사입니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입니다.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입니다.

강중구 일산병원장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입자 자격·부과 및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부터 아홉 번째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 실천' 순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가입자 자격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입자 수는 총 5056만 명으로 이 중 직장가입자는 72.2%인 3651만 명, 지역가입자는 1405만 명입니다. 보험료는 매월 3조 7841억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중 직장보험료가 84.4%, 지역보험료가 15.6%입니다.

보험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일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연말정산제도를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하였고, 진료 목적으로 입국 후 급여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시행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하여 실무지원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정책결정 기초자료 제공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 무자격자 부정수급 증가 또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적기 대응 곤란 등 그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어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으로 국민건강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 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 징수는 통합 전 97.1%에서 지

난해 97.9%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제 징수하고 납부 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 처분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자 편의를 위해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보장률이 2013년 62%에서 2014년 63.2%로 1.2%p 상승하였습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은 금년 말까지 583개 항목에 대하여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의사 비율이 33%까지 축소되고, 상급병실료는 대형병원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70%까지 상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병원 내 감염위험을 감소하는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서울 소재 대상기관까지 확대하고 18년 이후 전국 모든 병원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수가 및 약가 협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수가는 매년 5월 31일까지 7개 유형별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있으며, 17년도 수가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2.37% 인상되었으며 전 유형에 걸쳐 수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약품비 관리를 위하여 신약은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결정하고 30~60% 이상 증가한 약제는 별도로 협상하여 약가를 인하하고 있으며,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보험재정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가 함께하는 재정 관리를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보험재정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정부담, 적정급여, 국고의 안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하여 고소득·재산 보유 체납자는 진료단계에서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구성하여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예방·증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2조 7000억 건의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석용 국민건강정보 DB와 표본연구 DB를 구축한 바 있고 공익 목적의 연구에 한해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회 등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내년 9월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서비스인 마이 헬스 뱅크(my health bank)에서 통합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하여 비만·영양, 금연, 정신건강 등 건강증진사업을 다변화하고 있고 건강걷기운동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내실화를 위해 취약계층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으며, 검진기관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사증후군 보유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자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 문제에 대응하고자 담배소송을 제기하여 흡연 폐해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는 물론 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범국민적 금연운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정책을 통해 수급자

는 48만 명으로 제도 초기보다 124%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추세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 중재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 갱신 시 인정조사 생략 등 민원불편 해소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특화된 맞춤형 복지용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직영연구소 설립을 통해 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또한 치매수급자를 위해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주야간 보호시설을 신규 도입하고, 수급자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고 입소 어르신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치과 촉탁의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단계부터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자 직영 서울요양원 운영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약지역의 공공부문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해 주야간 보호시설 설립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 보편적 건강보장 글로벌 리더십 강화입니다.

건강보험 글로벌화를 위하여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기구인 WHO, 월드뱅크와 공동협력을 통해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있으며, 가나, 에티오피아 등과 ODA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사우디, 멕시코 등 10여 개 국가에 제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글로벌화된 우리 제도의 국제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에서는 건강보장제도를 선도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예방·검진·증진체계, 장기요양보험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태동시부터 현재까지의 성과와 역사를 집대성하는 '건강보험 40년사' 발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병원에서는 건강보험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해 각종 자료를 생산·제공하고 있으며 신포괄수가제, 완화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자병원으로서 사회적 관심질환에 대한 특화센터 및 공익적 병동을 운영하고 있고, 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표준 진료지침을 수행하고 4인 기준 병실 운영과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경영 실천입니다.

지난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였고, 올해에는 미래전략 실행기반 확립을 위해 전사적 경영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준정부기관 최대 규모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금년에는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의료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과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개설, 집수리 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저희 공단의 노력의 결과 공단 최초로 청렴도 1등급 또 정부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성상철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승조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상희 위원 인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예, 인사 듣기 전에 김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모든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은 메르스라고 하는 국가적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보건 당국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인재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감사

원의 감사 결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GDP가 22조 원이나 감소하고 손해를 봤습니다. 186명이 감염됐고 38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책임은 그 당시 보건 당국의 총책을 맡았던 문형표 장관이었습니다. 문형표 장관은 그 이후에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병관리본부장부터 보건소 직원까지 모조리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지휘했던, 총책임자였던 문형표 지금 현 이사장, 장관이셨는데요. 그 후 4개월 만에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장 자리로 취임을 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인사였습니다.

지금 메르스특위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문형표 이사장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부적절하고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더구나 그 이후 국회의 국정감사 때는 전혀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국회에는 아마 오늘이 처음이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장관이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그 부처 소관의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또 거기에 취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는 인사이고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대 국회 말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형표 이사장이 국회에서 제대로 이사장 취임 이후에 자기의 소견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형표 이사장께서 국가적 재난이었던 메르스 사태의 궁극적 책임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섰는데요. 지금 문형표 이사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문형표 이사장님의 사과와 그리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승조 새누리당 위원님들, 혹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이 계신가요?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좀 적절한지도 한번 위원장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또 위원님 질의시간에 연금공단 이사장께 그런 사과 표명의 의사를 좀 물어보시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정춘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광수 위원님부터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지요.

○김광수 위원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작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물론 본인께서는 그때는 민간인 신분이니까 국감에 나오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본인께서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셨든 또 관련 부서의 이사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 표명이나 해명이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남인순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는데 같은 내용이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다른 내용이면 해 주시고요.

○남인순 위원 남인순 위원입니다.

저는 메르스특위의 특위위원이기도 했고 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19대 때…… 메르스 사태가 너무나 정말 국민적인 큰 사건이었고요, 또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물론 문형표 장관님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우리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때 많은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 국민연금공단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실은 국회가 올해 2월, 4월 임시국회가 있었지만 따로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이렇게 국회에서 뵙게 됐는데, 사실은 연금공단의 수장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보고를 받고, 또 어쨌든 서로 신뢰의 마음을 갖고 그래도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어쨌든 메르스 사태 때 총책임을 졌던 그런 수장으로서의…… 그 당시에 분명히 문책성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오게 되고 나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공직을 맡으셨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도 좀 하셔야만 저희가 앞으로도 질의응답 할 때 그런 문제가 다시 배경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좀 표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관련해서 새누리당 위원님 한 분 더 하실 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온 국민의 아픔과 상처가 있던 메르스 사태였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제3차 진료병원까지도 침투를 받고, 그 부분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애석하고 유감스러운 내용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또 각 위원들의 질의가 잇따르고 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은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 시간에 많은 질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린다고 한다면, 지금 남인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의 시간에 더 이상 이것을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무리가 따르겠지만 본인이 사의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수긍을 했고,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는 부분에서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재고에 대한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일정이나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무리수를 따르지 않게 인사말씀을 좀 듣고 그와 관련된 숙지되는 것은 또 깊이 심도 있게 진행과정 중에서 따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정춘숙 위원님 한번……

마지막으로 할까요, 의사진행발언?

○정춘숙 위원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일반 국민으로서 과연 이것이 선진국 혹은 OECD에 가입되어 있는 혹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일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서부터 비롯된 인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건당국의 총책임을 져야 하시는 분이 보건복지부장관이셨던 문형표 지금 이사장이신데요.

그 부하직원들은 1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의 부하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영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신 거예요. 국민의 노후자금 500조가 있는 이 커다란 조직의 수장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와 달리 이 메르스 사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혹은 공공기관이라는 커다란 조직의 대표를 하는 이런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과연 책임지고 이 일을 맡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메르스 사태를 생각해 보면 19대 때 이거 질의가 안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사퇴하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신 것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인사말보다도 사과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실 것인지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마지막으로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세상은 하여튼 똑같은 현상을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했던 국가적인 위난 사태가 생겼을 때,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초기에는 당황하고 또 기존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행정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실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준비하는 것과 현실에 대응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분명히 당시에 문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 많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쉬움과 사과의 이런 의사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어떤 초기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그것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다치면서까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태를 수습하고 또다시 보완책을 강구한 그 공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자리에서, 그때 정말 어쩌면 불명예스럽다면 불명예스러운 어떤 많은 언론의 지탄도 받으면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수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좀 격려해 주는 이런 반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무슨 사과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당시의 그런 감회를 한번 들어보는 것은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꼭 이것을 항상 어떤 특정 관점에서만 이렇게 부각시키기보다는 균형적 관점에서, 또 노고하는 측면, 그 당시에 또 좀 아쉬웠던 측면, 이런 것을 같이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양승조 감사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기회를 드리고요.

○윤소하 위원 끝에 있어서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도리로서…… 이것은 위원들한테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에 의사진행발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새누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의 부분을 조금 악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즉, 최소한 거기에 대한 사과와 향후 대책은 곧 국민연금공단을 어떻게 책임 있게 운영할 것인가로 이어진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수습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 공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 이것은 전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에 거기에 유감을 오히려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의사진행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질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희석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고맙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3당 간사님과 상의한 결과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는 문형표 이사장님께서, 사실 장관직을 사임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 공식석상에 계신 것이거든요. 또 여러분의 그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문형표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사과 내지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이 자리에서……

○위원장 양승조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 주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9대 국회 때 제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후적으로 당시 위원장님 그리고 간사님들을 뵙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국회 때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상황이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빌려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한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 항상 가슴에 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어떤 직원 징계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수장으로서 제 마음도 상당히 아프고 상당히 불편하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르스 사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메르스에 대한 전파력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를 한 탓에 초동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안전처 등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 가지고 수습하면서 또 나름대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것을

좀 잦아들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또 질병관리본부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거의 밤잠을 못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물론 초동 대응의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되지 못한 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응모를 하게 되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메르스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저는 제 평생 동안 국민연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연구를 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발전이 정말 저의 가장 큰 바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사장으로 이렇게 현장에 와서 공단을 이끌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도 발전 그리고 또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미력하나마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이사장님, 국민과 상임위원들 한테 명백하게 사과 뜻을 표명하신 것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양승조 그러면 위원님들 받아들이시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형표 이사장님 말씀대로 인사와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민의 복지와 보건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민연금공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 증진 그리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서 국민연금의 장기 발전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잘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임시국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조언은 향후 공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국 감사입니다.

이원희 기획이사입니다.

김무용 업무이사입니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하 간부진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참석자 명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 설립 목적과 주요업무입니다.

저희 공단은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1999년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장애인 복지사업과 기초연금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 조직 및 예산 운영입니다.

공단 조직은 본부에 13실 1센터, 기금운용본부 등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10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5527명이고, 여성과 장애인 고용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은 19조 2520억 원으로 이 중 연금급여비 지출이 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연금제도,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및 기관운영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제도 운영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유럽 국가에 비해서 늦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결과 가입자 2156만 명, 소득신고자 1715만 명을 돌파하였고, 장래 연금 수급이 가능한 716만 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추납적용 확대, 실업크레딧 신규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1인 1연금 체계 구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자료 등을 활용해서 가입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한편 수급권 확충을 위한 가입지원 신고센터의 활성화 등 제도 개선 및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단은 수급자 398만 명에게 매월 1조 4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연기연금 제도의 도입, 실버론 확대 실시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금 지급의 정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급여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급자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금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 수급권 확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적정 수급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기초연금제도 운영 안정화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현재 약 455만 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81%가 1개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게 되심으로써 노인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미수급 방지망 운영과 함께 장애나 격오지 거주 등 신청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는 직접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예방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서 복지재정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 규모의 증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대비해서 주식과 대체, 해외투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투자대상 발굴 등 투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금 적립금의 46%에 해당하는 총 240조 원의 운용수익을 시현하는 등 국민연금은 적립금 524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전술적 자산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헤지펀드 포트폴리오 구축, 신흥시장과 기회자산으로의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지역과 유형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기업의 합리적 배당정책 유도, 기업별 ESG 평가 결과의 공유 등 책임투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리스크 관리 관련입니다.

투자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NPS 위기인식지수를 개발·활용하고 국가 리스크 관리기준을 시행하는 등 사전·사후 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외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사전적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체 및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관리도 보다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투자유형의 자산운용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위탁운용 펀드의 관리체계 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투자지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일인당 운용규모의 적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투자 조직 신설 등 투자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금 최초의 외화계좌 개설과 함께 해외 연기금과의 투자 네트워크도 보다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운용의 비전과 투자원칙 등 가치체계를 마련하고 대체투자 조직을 자산별로 개편하는 등

조직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국가별·자산별 세무이슈 종합 관리 등 자산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우리 환경에 적합한 해외투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복지서비스 분야입니다.

공단은 공공분야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전국에 배치된 노후준비지원 전문인력이 1 대 1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시행에 따라서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전국 단위의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표준화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정보도 함께 추가 연계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공단은 28년간의 장애심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장애심사 자료를 직접 확보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장애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절차 개선과 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지원사업의 전문 수행체계 구축을 통해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는 한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수급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5쪽 기관 운영 분야입니다.

대국민서비스의 개선과 경영혁신의 노력으로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최고 가치로 삼아 전사 역량을 모은 결과로 공공기관 최초로 비대면·대면 분야 모두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과와 역량에 기반한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마련 등 일류 인재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단은 인사평가제도 개선 TF를 지난 3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조직 구성원이 체감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핵심 업무 중심의 효율적 조직·인력 설계 등 국민 관점에서의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단은 업(業)과 연계해서 가입자 및 수급자,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협력기업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역인재 채용,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현안입니다.

주요 현안과제인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과 기금운용본부 이전 및 안정적 운용여건 조성 그리고 국민연금 장기 재정목표 수립에 관한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난 5월 경력단절 여성 추납 적용 확대, 급여 수급기준의 합리화 등 사각지대 축소와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공단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들어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내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기금운용 전문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이전 이후에도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운용 여건 조성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재정목표의 수립과 이에 기반한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발전 방안 마련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조기 구성 예정인 재정목표 수립 관련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

정입니다.

35쪽입니다.

이하 내용인 참고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문형표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사평가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장에 참석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숙 상임감사입니다.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입니다.

윤석준 기획상임이사입니다.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입니다.

변성애 업무상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우리 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가격·기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연간 약 14억 5000만 건, 66조 원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을 대리해 지출 관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평가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평원의 설립 목적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주요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교육,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진료비용의 심사·평가,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등입니다.

심평원은 77년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설립부터 시작하여 79년 진료비용의 전체 심사를 시작하고,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조직과 예산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총 27개 실, 9개 지원, 2400여 명이며 구성원 중 여성이 76.2%, 전문인력이 73%입니다.

조직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3924억 원으로 주요 수입재원은 건강보험부담금과 심사 수수료로 표와 같습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기관으로 진료건수 14억 4700여만 건이고 진료비 65조 9583억 원에 달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의료비 102조 9000억 원 중 심평원 관리 규모는 63조 2000억 원입니다.

다음 6쪽으로, 이러한 보건의료시스템 관리업무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준 설정과 이러한 기준 규칙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행해졌는지를 심사, 평가, 조사 등 모니터링 및 환류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자원 관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 프로세스는 하단의 표와 같이 IT를 기반으로 정보 수집·처리·분석하고 정부, 건보공단 등 활용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 설정입니다.

고령화, 질병패턴의 변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관리자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15년 만에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 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 최우선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현황으로 요양급여 결정 및 가격 관리,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약품 및 의료자원 현황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요양급여 결정 및 가격 관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의 결정 등 업무는 새로운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가격을 결정·관리하는 업무로서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처리절차는 표와 같이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결정신청이 되면 5개 전문분야별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요양급여 등재 및 급여 결정 현황입니다.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는 모두 7만 1513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별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 인체조직, 질병군, 약제급여 위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매 회의 시마다 22명 내외로 선출하고, 특히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67명의 별도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 급여절차 결정을 위해 기존 또는 신의료기술 여부 확인 절차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였고 2016년 7월부터 의료기기 평가와 허가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에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확대 및 수가 개선 업무입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 모두 628개 항목에 대해 2016년부터 급여를 확대하고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성은 낮으나 환자 부담이 큰 29개 비급여 항목은 선별급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비 등 환자 부담이 고액인 비급여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진료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고, 선택진료제도 개편에 따른 손실 부분은 5000억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병원 이상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70%로 조정하고 6인실 50% 이상 확보 의무는 폐지하였습니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관리를 통해 환자 안전이 보장되도록 감염관리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적정 감염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수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뿐만 아니라 분만 상급병실 급여화, 신생아 중환자실, 이식환자의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등에 건강보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진료의뢰 및 회송 활성화, 응급환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응급원격 협력진료 2차 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시범수가, 수련병원 의료인력 공백 대응 및 입원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급여의 가격 관리업무로 약제 상한금액 조정 및 등재 절차 개선을 하고 있고, 치료재료 가치산정의 합리화를 위해 치료재료 가치평가 인정기준 및 별도 산정기준의 개선을 검토하고 치료재료 제조 및 수입 원가 조사를 통해 7개 품목군, 5300여 개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 및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수가제 및 지불제도 개선 사업입니다.

백내장, 치질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별도 보상이 필요한 마취초빙료와 동시수술료 수가를 분리하는 등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고,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로 포괄적 보상과 행위별 보상 방식을 혼합 적용한 지불제도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으로 41개 공공병원, 559개 질병군에 입원환자의 95%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 개발,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평가 지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심사업무입니다.

심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건강보험과 환자가 부담할 적정 진료비용을 결정하는 업무로서 일반심사와 전문심사로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심사업무는 심사 투명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고 자율·예방 및 적정진료를 유도하며 지식기반의 심사 및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심사실적 및 요양기관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심사를 전산화·과학화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융합하여 심사기준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산심사시스템 개발을 확대하여 71.4%까지 전산심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융합심사시스템 구축 업무로서 사람의 판단역량과 ICT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식심사 추진을 위해 융합심사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양기관 등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기관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진료비청구포털, 진료비 청구 오류 최소화를 위한 요양기관 자가점검서비스 3.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후 규제, 간섭 중심의 심사보다 효율적인 예방과 자율에 의해 진료 내역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일제정비 하였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를 전건 공개하며 상근심사위원을 90명까지 증원하는 등 심사 전문성 향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서 의료의 질 향상 및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내원일수 등 6개 항목에 대해 기준 지표와 기관별 지표를 비교하여 집중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의료비 2800여 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척추수술 등 19개 항목을 집중 심사하여 국민의료비 1134억 원을 절감하고 안전한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실태점검 및 요양병원 질 평가를 실시하여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요양병원 정보제공으로 국민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건강보험 외 진료비심사 수탁 및 현지조사 업무로 의료급여, 보훈진료비 등 국가관리 진료비 심사업무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요양급여비용의 사실관계·적법여부를 조사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조사거부, 거짓청구 등을 형사고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입니다.

의료의 질적 향상 및 비용부담의 적정화를 위하여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발전을 위해 '2020 평가 발전방안'을 수립·실행하고 기관단위 평가 등 포괄평가를 통해 성과지불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평가 현황입니다.

16년 현재 5대 암, 환자, 병원 등 37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2002년 73.3%에 달하던 항생제 처방률이 15년에 44.1%로 낮아지는 등 환자안전 및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평가를 강화하고 의료의 질 개선 유도를 위해 치과, 한방 등 전체 의료영역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질 평가 추진과 더불어 16년부터 환자 중심의 환자 안전까지 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의료의 질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등급화하고 선택진료비를 축소하여 의료의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센티브를 16년 5000억 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약품 처방 행태 개선 및 약품비 적정 관리를 위해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구매 노력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주기로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43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척추·관절 등 20개 분야의 111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의료의 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평가 결과의 수용성 확보와 국민 선택권 강화를 위해 평가 과정에 의료 소비자 및 공급자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한 평가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등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및 병원 선택을 위해 동영상, 모바일 앱 등을 통해 144개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의약품 및 의료자원관리 업무입

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DUR로 불리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과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에 활용하고 DUR 시스템을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여 실시간 진료정보 교류 및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지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DUR 시스템은 세계에서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위하여 의약품별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의약품 유통정보의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별 거래수량, 가격 등 유통정보를 수집하여 의약산업 발전 및 공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관리 업무로 요양기관 개설·폐업, 인력·시설·장비 변경 사항을 등록하고 지자체 보건소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관리를 위해 요양기관의 편리성 및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진료비를 법령에 어긋나게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관리업무로서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분석 및 공개의 법 근거가 마련되고 심평원에 위탁됨에 따라 2016년도는 150병상을 초과하는 2018개 병원에 대해 12월 1일 공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표준화를 확대하고 진료비용 정보관리 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해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진료, 약제, 의료자원 등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운영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현재 개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9쪽의 기관경영입니다.

심평원 본원은 작년 12월 1184명이 원주로 이전하고 2단계 이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해 밝게 열린 스마트 조직문화를 구현,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및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보건의료 구매 시스템 전파를 위해 국제협력 및 다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를 2016년 1월 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주최하였고 WHO 후원으로 개최하였으며 인류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회의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맞춤형 정책 컨설팅 ODA 사업에 참여하고, 심평원 심사평가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또 국가 과제인 규제개선과제 20개를 발굴하여 17개를 개선하였으며 사람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책임경영 실현을 위해서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지역 초등학교에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 나눔 활동 및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 경영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손명세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시간 없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의가 길어질 경우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님, 아까 유감 표하시고 사과를 하셨으니까 재론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 취임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작년 12월 31일날 취임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연말에 하셨네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광수 위원 연금공단에 속해 있는 기금본에

서 투자한 내역을 좀 보니까 옥시하고, 지금 옥시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광수 위원 옥시가 2011년 4월에 폐손상증후군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 의뢰했고 결과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2011년도부터 옥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있으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투자 액수가 계속 늘었어요. 2011년도에 186억을 투자했는데 2015년도에 거의 7배에 가까운 1272억 원을 투자했고 또 가습기살균제 생산·유통업체인 GS리테일에 2011년도 507억에서 2015년도 2872억, 약 6배 정도 투자액을 늘렸고 또 똑같은 가습기살균제 유통·생산업체인 SK케미칼에게도 2011년도에 1051억 투자했고 2015년도에 2108억, 거의 2배 이상 투자액수를 늘렸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기업에 투자가 결과적으로 계속 늘어났단 말이지요. 이 부분들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선 국민연금법 102조를 보면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고려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말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급증시켰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책임투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어떤 재무적 투자가로서의 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0년에 저희 기금이 주식에 투자된 게 55조 원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95조 원으로 거의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양은 늘어나는데 이런 기업에 이렇게 10배, 6배 가까이 급증하게 투자를 한 것은 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투자할 생각이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옥시 사태의 중차대성은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그 책임투자 차원 또 우리가 재무적 투자가로서의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투자해서 그 이익, 시스템을 제가……

투자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군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이러한 개별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 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금운용 규정을 보면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과 거래의 결정이 센터장의 전결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광수 위원 센터장의 전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옥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파장이 엄청 크고 그래서 투자 손실을 입지 않으셨어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으니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자료 제출이 늦어진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관련 자료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투자 차원에서는 영국 본사 옥시레킷벤키저하고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실이 있었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정확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5년 투자가 급증한 시점으로 보면 그 이후에 투자에 대한 손익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산이 안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다 모니터를 하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실무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전결이, 센터장이 전결하는 운용 규정 자체의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의 손실을 입었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물론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저희 전체의 책임이 되겠습니다만 개별 항목 투자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아니, 투자에서 그때그때 어떤 판단에 의해서 투자가 약간의 손실을 입고 이익을 얻고 하는 것은 책임질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손실을 입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이 전결권자가 센터장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일단 저희 기금운용본부에서는요, 저희가 전술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이러한 투자 항목으로 적합하다 안 하다 이 판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장에서, 재무적 투자가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광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언급했던 3개 기업을 비롯한 옥시 관련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관련 기업들에게 계속 투자할 생각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관계된 기업과 계속 면담을 하고 그쪽의 대응방안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조치 계획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기업 가치가 얼마나 훼손될 것인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어떤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광수 위원 상세한 투자 내역과 아울러서 2015년도는 결산이 되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제가 투자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조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저는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순례 위원 영유아의 무료 건강검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대략 한 7차까지, 1차부터 7차까지 건강검진이 부모의 문답에 의해서 거의 시행이 되는 것으로 현장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대부분 부모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부모의 바라보는 눈의 어떤 편향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실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어떤 소기의 실적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는 검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바닥의 민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더욱 1차, 2차, 3차, 7차에 걸쳐서 가는 동안에 점점 더 검진의 수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순례 위원 이것에 대한,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한 5차까지 검진을 하고 나면 보호자 판단으로 성장발달에 별로 이상이 없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6·7차 검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김순례 위원 그러면 성장발달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장님께서 보는? 영유아의 성장발달은 과연 어느 부분, 범위를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 위원 거의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순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홍보 부족에 기인된 내용이 아니고 어떤 실질적이고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영유아의 건강을 판단하는 것에서는 너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보통 아이들의 성장발달 중에서 지적인 장애 아니면 육신적인 장애,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혹시 자폐증에 대해서 이사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자폐는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순례 위원 자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저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마는……

○김순례 위원 예, 말씀해 보시지요, 객관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아이들이 대화를 나누기도 꺼리고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성장발달 과정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어떤 대중적인 소통의 부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소통의 부재,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고에 의하면 자폐율의 증가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전문성 부족,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의 부족으로 인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지고 있다 이런 보고가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발생률이 보통 68명 중 1명이 오티즘 스펙트럼(Autism Spectrum)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보고에 따르면 33명 중에 1명꼴이 거의 그 스펙트럼 내에 존재하는데 그 다양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불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도권 안에서 변별되지 않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생률과도 연관성이 있으면서 거의 연구가 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의 형태가……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애간장이 녹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다 보니 거의 에이전시들이 아이들의 자폐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민간단체에 형성된 부분이 확장되면서 부모들을 많이 울리고 있다는 현장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료비용이 적게는 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상회하는 일대일 매칭 치료비용을 내고 있고 그러함에도 지속적이고 제도권에서 쳐다보지 않는 그런 무관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모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세계 속에서 저희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아이, 건강한 정신을 가진 아이를 출산과 더불어서 잘 키워 놓는 것은 우리 사회적인 마땅한 도덕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검증되지 않은 민간치료를 통해서 부모들이 받고 있고 만 3세 미만에서의 적절한 조기 발견과 더불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는……

과거에 암은 거의 치유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선생님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암은 극복할 수 있다, 거의 70~80% 치료가 된다,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저는 자폐 아이들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 ABA 치료시스템, BCBA라는 어떤 적절한 시스템의 상황에 따른 치료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보고에 의하면 거의 60%, 70% 상당히 호전이 되고 그중에 한 40% 이상은 대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룹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도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난립하고 있는 자폐진단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험도 되지 않고요, 제도권 안에도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상당히 놓치고 있고 방임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무한한 공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 저는 자폐아에 대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고 있고 법제도 속에서 정말 자폐아를 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살피겠다는 각오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립하고 있는 자폐진단시스템 또 아니면 치료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제를 검증

된 전문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 보급이 되고 마땅하게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제는 저희가 방치해야 될 부분의 질환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순례 위원 고칠 수 있다는 세계 각국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집단 내에서의 어떤 공유되는 심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을 지역 출신 기동민입니다.

문형표 전 장관님이시지요?

아까 답변을 듣고 초기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직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진정으로 어떻게 책임지고자 했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직을 마치고서 국민들에게 또 어떠한 마음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몇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13년 9월까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네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 면에서는 한쪽에서는 저는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민연금의 최고 전문가다 이런 평가들도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기동민 위원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내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장관에 부임하신 게 언제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기동민 위원 그러면 장관 퇴임하신 건 언제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작년 9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작년 8월에 퇴임하셨지요?

메르스는 2015년, 작년 5월 20일에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6명의 사망자가 나타났고요. 약 1만 6000명에서 1만 7000명의 환자들이 격리조치를 당했습니다.

장관님 퇴임하시고 임용된 날짜가 12월 31일이라고 그러셨지요,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메르스 공식 종료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동민 위원 그게 15년 12월 23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기동민 위원 공식 종료된 지 딱 일주일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셨어요.

인사는 적재적소라고 그러잖아요. 적당한 곳에 적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갑니다. 적당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적재적소에는 저는 과연 적절한 시기인지 하는 적시성도 들어 있고 적절하냐의 적절성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장관이 메르스 사태가 공식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해당 기관의 산하기관의 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 인사권자의 뜻이겠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하기관의 간부 16명이 징계를 당했고 엄청난, 수많은 국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했는데 그리고 또 생명까지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무겁게 책임지고 자숙하고, 아무리 자신의 전문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적절함에서 떨어진다면 사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자주 자중하고 근신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저는 보건복지부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산하기관의 장으로 가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 분야에 정말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그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어른은 이분밖

에 없다라는 후배들의 간곡한 요청과 국민적 요청이 있다면 저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산하기관으로 가서 일을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미담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인사는 적재적소의 능력은 겸비했을지 모르지만 적절성도 적시성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그런 인사였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측면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과연 연금의 전문가가 국민연금공단을 맡는 것이 그것이 해법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건복지부장관을 의사 출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연금 문제를 전 장관님을 시켰겠지요. 혹시 비전문가였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를 그렇게 대하신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사태에 딱 기억나는 것은 하나예요. 국민들 눈에 복지부의 조치는 '낙타 접근 금지', 대단히 비상식적인 그런 것이 첫 조치로 나왔어요. 그것만 다 기억이 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대처한 것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건장관을 해임하고 다른 장관을,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을 보건장관에 겸임 발령을 내면서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요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투명한 정보 공개였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저는 혹시 연금전문가라는 그런 장점이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는 장점으로 발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서 또 다른 우를 범하게 될 것인지 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장관님께서 처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저는 그러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런 과정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의 좀 더 진솔한 사과와 그리고 공직자로서 어떻게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겠다는 솔직한 자기 진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위원님의 지적들, 판단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시는 중에 말씀하시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공단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를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만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장관님 처음의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잡으려고 생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직원 이하 보건의료계, 특히 의사분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호사분들, 보건당국의 보건의료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 희생을 깔보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그 현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정부당국과 관리감독 체계 무능을 질타하고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첨언 드립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조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성상철 이사장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기획단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 왔고 2015년도에 최종 개편안에 대한 언론 설명회까지 했습니다마는 느닷없이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올해는 추진하지 않겠다, 백지화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도 연간 한 6700만 건 정도의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본연의 업무 수행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이의

제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대 전 공단 이사장께서 2014년도 퇴임하면서 본인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보면 '퇴직하면 연간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과 5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인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반면에 올해 초에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성·연령 또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 140원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마 이 부과체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분의 모 지방언론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미온적인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야당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시나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공정성·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동안 개선기획단도 복지부와 함께 운영을 해 왔고 여기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당시 개편안이 백지화 된 주 이유는 뭡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자세한 이유는 저로서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김상훈 위원 지금 지역가입자들이 대체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피부양자로 편입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빈번한데 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글쎄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좀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부과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적인 수용성이라든가 형평성·재정 등을 고려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 건보에서 나름대로 로드맵이 있으시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저도 메르스 사태를 떠나서 우리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하신 분께서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응모해서 가신다는 것이 사실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자로서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과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관리·집행해야 되는 공단 이사장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설하고, 우리 연금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가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상훈 위원 그래서 이분들께서 지금 연간 한 524조 원 정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약직이지요, 대부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분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5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 불미스럽게 아마 임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퇴직 후에 자신의 직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는 모럴해저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2013년도의 사례를 보면 기금운용본부의 주식투자실장을 하셨던 본인이 직접 투자를 주도했던 교보악사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는 이런 사례 등이 있고 실제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분들의 전체 61명 중에 42분이 금융기관으로 재취업을 하셨습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모럴해저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들,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민간 부분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인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일 민간 부분으로 다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제약을 하면 저희가 리크루팅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곤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한 상황하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려들이 없

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6개월 동안 거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예, 제한기간이 있지요.

또 524조를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임직원이 재임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본인이 혹시 가게 될지 모를 그런 직장에 나름대로 뭔가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모럴해저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든지 수단이 저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형표 이사장님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요.

문형표 이사장님, 문형표 이사장님께서 아까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상식과 원칙에 맞게 앞으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문형표 이사장님의 이사장 취임, 이사장 직분을 지금 받아들인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이게 상식과 원칙에 맞지를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고 그리고 자기 직원들은 다 징계를 받는데 본인은 그대로 복지부의 산하기관의 이사장으로 장관이 직행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금을 관리하는, 500조이지요, 520조인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적절한 처신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연기금의 문제점으로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경제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기금을 축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과도한 금융자산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 싹쓸이 현상, 그것에 따른 위험성, 그리고 한국사회의 균형 발전과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한 투자 철학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는 사회적인 책임 투자여야 되고 윤리 투자여야 되고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투자여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공감하시지요? 그냥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제가 좀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희 위원 공감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왜냐하면 지금 기금이 과도하게 금융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기금이 사실은 저희들의 지불준비금입니다, 향후. 그렇게 됐을 때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24조 쌓여 있는 돈 이상으로 충당부채가 쌓여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그것과 관련한 긴 토론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님도 전문가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연금이 올 2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리츠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사실은 이것은 지금 뉴스테이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협약이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뉴스테이에 투자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뉴스테이는 기업에서 하는 임대주택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기업은 어쨌든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지요? 그렇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야당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이나 보육시설의 확충 이런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이 고갈되고 굉장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걱정들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출산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고령화·저출산인 것 같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인구절벽,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전 국가적으로 나서야 되지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주거불안 문제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불안입니다. 그리고 보육 문제, 일자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가재정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해야 되지만, 국민연금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 저출산 문제에 나서야 되고 국민들의 주거불안 문제, 이것으로 인한 결혼 기피,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정진엽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보니까 뉴스테이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도 국토부와 정보를 공유해 수익성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기고, 그런 부정적인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왜 지금 뉴스테이에는 투자를 하고 임대주택, 공공투자에는 이렇게 소극적이신 거지요?

뉴스테이는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저소득층, 특히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뉴스테이에 대해서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MOU를 맺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면서, 그 성격은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사업이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로서 대체투자로서 저희가 고려를 하겠다라고 MOU를 맺었고요. 개별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으로서의 투자 결정하고 좀 다른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고 몇 분만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양승조 추가질의 안 하고요?

○김상희 위원 이게 연속선상에 있어서……

그만둘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

○위원장 양승조 김상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혜숙 위원 자료제출 요구 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양승조 예, 전혜숙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요.

○전혜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사실 과거에 투자 행태가 정권과 관련된 특정 기업에 투자를 했다, 예전에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어떤 사례인지……

○전혜숙 위원 알고 계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정확히 지금 무슨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특정 실세와 관련된 특정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았다 이래 가지고 예전에 문제가 좀 된 적이 있어요.

아까 모럴해저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전혜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으며 퇴직 후에, 보통 공직자들은 퇴직 후에 산하기관 어디를 못 간다, 관련된 기관에 취업 못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하고, 근무연한, 보수……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

시는 분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약이 있는지, 일반 공직자들하고 같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서산·태안의 성일종 위원입니다.

우선 건보공단 이사장님, 15년까지 쭉 보면 재정수지가 17조 정도 흑자를 내고 있어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건보가 만약에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어려울 텐데 이렇게 돈이 좀 쌓이는 것은 향후에도 운용하는 데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은 재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3%고 OECD 보면 78%인데 저희가 좀 낮지요. 낮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보장률을 자꾸 올린다고 해서 과연 최선책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이러한 취약계층의 30%든 40%든 둬 가지고 OECD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회적인 약자 측면, 취약 이런 쪽에 맞춰서 정책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대책이 있나요?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지금 4대 중증질환이라든가 비급여 부분을 급여하는 등 그런 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본인부담을 덜 하도록 그렇게……

○성일종 위원 이게 보장성을 자꾸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OECD 수준 그 이상으로 갈 때, 갈 때는 가더라도 상위층보다는 하위층으로 정책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성일종 위원 또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보면 직장에서 2483만 명이 3545만 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 지역가입자는 2226만 명에서 1469만 명으로 34%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이 안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2055만 명에 이르는 지역 피보험자 그러니까 피부양자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2055만 명에서 2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137만 명이라는 거예요. 5가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6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산 많은 분들이 보험금 안 내겠다고 자식이나 누구한테 또는 편법적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해 가지고 우리 건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또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한 76%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장애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수준이 낮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에서는 59.2% 정도만 받고 있고요. 장애 쪽에서는 69% 받고 있어서 이분들이 큰 질병으로 번졌을 때, 예방적 개념이 아니고 질병으로 번졌을 때는 건보재정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책도 좀 세워 주셔 가지고 다음에 이사장님이 피드백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또 사무장병원입니다.

사무장병원에 지난 5년 동안 건보에서 지급한 돈이 1조 2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거둬들인 돈이 900억 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국고가 손실이 된

것이지요.

이게 발견 즉시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회수율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사무장병원으로 판명이 되는 즉시 그 보증금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사무장에 관련되는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게 한 달, 두 달, 1년 지나서 회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빨리 우리가 검토를 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회수 방안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책이 수립되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성일종 위원 국민연금 이사장님, 오늘 고생하시는데 어찌됐든 정서적으로야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오셨습니다.

국민이 맡기는 이 기금이 부채입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충당부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채를 은행에서 예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운용을 할 때 독립성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노력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구라고 하는 것도 계속 증가할 때는 모든 게 상향으로 조정이 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에서는 SOC 투자라든지 주택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 투자했다가 회수가 안 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향후에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그 사회에 맞게, 또 지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보도 부탁을 하고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남인순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잠시 정회했다가 정회 후에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심평원 서정숙 상임감사님 나오셨지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맞지요?

상임감사님, 맞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상임감사께서는 1992년 민주자유당 강남갑 여성실장을 시작으로 25년 정치 인생을 통해서 잔뼈가 굵은 준비된 비례대표임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탈락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여약사회 회장도 지내셨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등에서 계속 활동을 하신 서 감사님의 인품이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심평원은 사기업체가 아니라 준정부기관입니다. 보통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심평원의 경우에는 정부 지분이 50% 미만이라 공직선거법 5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도의적인 책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평원의 상임감사직을 유지하면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청하는 것도 좀 그런데 현재까지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상임감사로 활동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점은 한 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상임감사님 답변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감사 서정숙 남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주변의 여러 가지 추천과 권유가 있어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선택받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런 과정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심평원 업무에 특별한 혜택이나 지장을 준 것은 없었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제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자문을 주변에 받았더니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본업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일단 남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향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남인순 위원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감사 서정숙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성상철 이사장님, 지금 국민연금공단에도 해당되는 것이라서요, 이따 같이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성과연봉제 도입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설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미명이라고 저는 보는데 상당히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조직 내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심평원에서는 지난 5월 30일 날 법적 필수절차인 과반수 노조의 동의 절차 없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강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건보공단 이사장님,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 가장 먼저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하셨는데요, 성과연봉제가 5월 30일 날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사안이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좀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노조로부터 협상이 거부돼서 실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공단의 정관 제25조제5항 이사회의 회의 개최 방법과 제27조제3항 이사회 안건 규정에 따르면 부쳐진 안건 중에 경미 또는 긴급을 요할 때 서면결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연봉제를 담은 보수규정 개정안이 경미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5월 중으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닥칠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 내지는 페널티가 예견되고 있었고……

○남인순 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닥칠 불이익이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성과연봉제를 5월 30일 안에 하면, 원래는 사실은 준정부기관은 11월까지였거든요. 그런데 5월 30일까지 하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인센티브……

○남인순 위원 인센티브를 10% 준다고 그랬지요, 기본 월봉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10 내지 20%로 되어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게 대충 직원들이 얼마 정도 못 받는 그런 시급한 문제기에 하셨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그게 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1인당. 1인당 도대체 얼마 정도…… 몇십만 원 정도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50만 원 정도 못 받게……

○남인순 위원 50만 원 정도를 못 받는 것이 가장…… 그것 한 번이잖아요, 일회성이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남인순 위원 그게 그렇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서면결의를 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남 위원님, 그뿐 아니라 내년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 충원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요.

○남인순 위원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요, 분명히 노사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이사장님으로서는 노사관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요. 지금 노조의 과반의 동의 절차 없이 단독으로 이사회를 강행했습니다. 이것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 알고 계지요? 근로기준법 위반하고 노사갈등을 유발하면서 이렇게 강행을 했어야 됐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저희 공단이 뭐 지난 일입니다마는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불이익을 그 당시 받은 이후로 11% 정도가 삭감이 돼서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런 불이익이 온다면 앞으로 직원들 복지라든가 미래 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이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임금제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결정을 지금 하신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도 5월 30일 날 노조와 합의 없이 서면의결을 했습니다. 서면

의결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나요? 오후 2시에 팩스, 메일로 4시까지 서면의결을 해 달라고, 5월 30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서면……

○남인순 위원 이사장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이라서 저는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일단 서면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날 아침에 대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거기에서 시위를 해서 반대를 하고 막고 못 들어가게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후에 서면결의를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상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한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관평가 또 우수기관평가, 여러 가지의 어떤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또 직원의 이익을 감안하는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수차례 정말로 노사 협의를 요청을 했고 그래도 그쪽에서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드립니다.

○남인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은 시장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자발적 합병과는 달리 국내 최대의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공단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공단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는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공단이 2006년도에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때문에 여러 의결권 행사 자문업체가 합병 반대를 권고하고 있고 공단이 직접 자문을 의뢰한 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공단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석연치 않은 결정은 삼성 총수 일가에 이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당시 11.2%의 삼성물산 지분을 소유했던 공단이 합병에 반대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을 것입니다. 공단이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공단이 삼성 총수 일가의 편을 들어준 대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30일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에 대하여 주식 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적정한 가격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반하여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581억 원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삼성그룹 총수 일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배임과 주가 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정당한 투자였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공단 결정의 책임자인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아무런 책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공단을 떠났습니다.

이사장님, 과연 공단은 책임이 없습니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 후에 상황을 사후적으로 체크를 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조작적 행위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삼성물산과 또 제일모직에 대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은 그 시장적 상황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적절치 않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하

면 그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및 반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행사 전문위로 이렇게 이관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투자전문위원회에서 그때 12명의 위원 중에서 반대 없이 여덟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에서의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하에서 자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최도자 위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대법원 판결 아직 안 나왔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요, 재벌 총수 편을 든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국민연금의 가입 저항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위원님……

○최도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공단이 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진상조사단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실시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투명하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선 이미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도 제출을 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또 투명하게 대응을 하고 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지 않으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문형표 이사장님께서는 유수한 경제학자, 경제학을 전공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이신데, 그전에 사회보장학회장도 한 번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금방 최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어떻게 보면 개별 최대주주로 돼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제 이사회에 그 비율을 결정하기 전과 후의 매도매수 관계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지금 법원에서 이미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렸지요? 그래서 고발까지 당한 부분이, 기금운용본부장이…… 그거는 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것은 투자의 실패 개념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그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을 노후까지 책임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성격을 제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물론입니다.

○윤소하 위원 그런데 재벌 총수들의 어떻게 보면 의혹이 많고 변칙적인 그런 인수합병의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을 살 만한 것을 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오는 '국민을 든든하게'라는, 마음을 좀 편하게 해 준다는 건데 거기에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런 뭐 의혹이 있다는 그러한 법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윤소하 위원 당시에…… 아니 저는 뭐, 직접 운용본부장은 아니셨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종의, 어떻게 보면 최고 단계의 보건복지부장관님이셨잖아요.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은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행여 그러한 점들이 있는가 저도 면밀히 사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뭐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이 매매 과정에서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렸다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윤소하 위원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장관님을 하셨으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명백히 저희들이 어떻게 매매 과정이 진행됐고 어떤 판단이 있었나를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을 대단히 투자적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지금 채권에서 주식으로, 주식 비율로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지요. 그런데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 대단히 전문가이고 운용을 잘한 것처럼, 이건 한편으로 대단히 고위험이 수반된다는 거 아시지요?

마치 이 자료에요, 헤지펀드를 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놨어요. 헤지펀드가 뭐지요? 대단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윤소하 위원 국민연금공단이 이런 단기 이익을 노린 주식투자라든가 위험군에 분류되는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 부분에 맞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투자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안정적인 채권을 더 확보하면서 적립금과 함께 수익 그것은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마치 자랑처럼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보고사항에다가 기재할 수가 있지요? 헤지펀드를 아주 자랑스럽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위원님, 헤지펀드에 대해서 그러한 우려들도 있음을 알겠습니다마는, 헤지펀드가 저희들이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기는 합니다마는……

○윤소하 위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자체를 투자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요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우리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옥시 사태, 가습기지요. 그 부분에 옥시, SK케미칼 등 10곳에다가 3조 8536억을 투자했지요? 다 회수했어요, 옥시 관련만이라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조 3000억 원 정도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어떻게 고려해 보겠다, 이거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투자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1800명이 직접 피해자고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직도 투자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예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사회책임투자 측면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소하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국민들은 옥시 불매를 하고, 정말 불매운동을 하면서 그 분노를 터트리고 있고 가습기 살균 문제 지금 특별 결의까지 하고 있고, 국회에서, 전담수사팀까지 구성된 이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 죄송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 놓고 무슨 표지에다가 심벌로 '국민을 든든하게', 이건 아닙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본령을 좀 회복하자, 이거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조치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이거 국민정서에 반하고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대화를 하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삼성 문제는 우리 최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다음 추가질문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 공단에서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아니,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장님들께서 대단히 지금 우리 노동자들을 많이 걱정을 하셔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에요. 노동자들을 걱정하면 1만 명 이상 반대하는데 어떻게 노동자들의 임금 몇십만 원 일에 페널티 매긴다고,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법이고 탈법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마는 근로기준법 상위 개념의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의 지침이 됐든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침이 됐든 어떻게 상위 법령을 하면서, 이 지침으로서 상위 법령 어겨가면서 하는 데 이사회가 동조할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불법적이고 대단히 부도덕한 방식으로. 아니, 개별 이게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그때 노동위원으로 참석한 분은, 한국노총에서 파견하신 분, 왜 개별 면담 안 하셨습니까? 시도도 안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그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리에는 나오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윤소하 위원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저희 비상임이사님이신데요 의논은 드렸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다른 분들은 다 결의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노동계 비상근은 왜 안 받으셨느냐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하셔서……

○윤소하 위원 두 공단의 이사장님께서 마치 노동자들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한번 노동자들의 분노를…… 노사 합의하에서 하시도록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양승조 윤소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승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굉장히 신중히 투자해야 되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을 국채에 투자해서 조달된 재원으로 공공투자,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공급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기금에는 이른바 운용원칙이 있습니다. 5대 운용원칙이 있고요.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독립성, 이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맞습니다.

○김승희 위원 만약에 기금으로 국채를 사서 공공투자를 하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이것 운용원칙 중에서 유동성의 원칙에 걸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말씀하시는 유동성 그리고 또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90년대에 정부가 예탁증서라는 종이증서를 써 주고 국민연금을 가져다 쓴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당시 정부가 이 돈을 쓰면서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를 지급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적지 않은 손실이 초래됐습니다.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폐지됐는데, 왜 폐지가 됐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당시 외환위기 때 세계은행과 IMF에서 그러한 관행을 하지 말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김승희 위원 국제기구에서 이 수익성 측면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폐지를 권고한 겁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특히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승희 위원 지금도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보면 복지사업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 어느 정도 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저희가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6%대로 되어 있고요.

○김승희 위원 몇 %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5.6%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는 4.65%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김승희 위원 지난 5년간 평균이 4.65%,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

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18.4%고 캐나다 연기금은 16.5%입니다. 굉장히 못 미칩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수익률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매우 빨리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로 변화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승희 위원 2060년이면 이 기금이 소진된다고,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이 소진된다면 불가피하게 부과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당시의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서 저희가 그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경우에는 보험료가 22%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후세대 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김승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이 되면 노인인구 중에서 90%, 약 16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의 수급자는 400만 명이고요 그리고 가입자가 2000만 명이에요. 그런데 2060년 되면 수급자는 1600만 명이 되고 가입자는 1400만 명이 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60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연금 받을 사람 한 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 소득의 대부분을 연금보험료로만 내는 것, 그것 바라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수익성이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이와 같은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 변동성 자산보다 안전성 자산이 우리나라가 더 높은 것,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를 위한 국채 매입은 변동성 자산인가요, 아니면 안전성 자산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국채의 행정료라고 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안전자산이지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능력이 해외에 비해서 좋지 않고 안전성 자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의 최근 연구결과도 있고, 그런데 안전성 자산인 이 대규모 국채 매입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이신 이사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희 위원 전문가시니까 정말 전문적인 판단으로 여기저기 좌지우지 되지 말고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승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공적연금을 이용한 일본의 공공투자정책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본이 61년도에 연금복지사업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복지사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결국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사업들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렇지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금의 이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실패한 사례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소득 보장의 최후 보루인 만큼 기금운용의 원칙과 국민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청주 서원구의 오제세 위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선진국은 80%대로 높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60%, 63%대로 낮다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에 의료비의 비중이 무려 17%나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다, 그래서 치료하다 보니까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의료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장님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동의합니다.

○오제세 위원 그래서 선거 때마다 의료보장에 대해서 공약을, 대선후보나 총선에서 공약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오제세 위원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는 4대 중증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암 몇 가지, 4대 중증에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병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중요한 병들이 또 빠져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4대 중증만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의료비 과다에 대한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 해서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본인부담을 100만 원으로 상한제를 하자, 이런 공약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비급여 부분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보장성이 계속 60%대로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60%대니까 의료보험이 60%밖에는 지급이 안 되니까 본인이 40%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오제세 위원 40%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으로 해서 본인부담을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으로 하자, 상한제로 하자, 이런 공약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OECD 선진국에서는 또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오제세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굉장히 의료보장을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OECD 각국에 비교하면 OECD 전체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하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저소득층에 그런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소위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서 중병에 걸리면 아주 가계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술이 발달하고 비급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보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 특히 또 실손보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노력을 통해서 점진적이나마 이것을 저희 공단의 핵심 과제로 삼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제세 위원 저희들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오면 비급여 부분 때문에 의료비가 상당히 많다 이런 부담을 느끼거든요. 저도 그런데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60% 보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보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든지 보장성을 높이겠다, 그런 공약을 선거 때마다 내거든요. 그래서 이 보장성을 높여야 되고요. 또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고소득층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의료비 부담이 가능하지만 중산층 이하는 이러한 40%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적인 의료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도 그러시고 보험공단 이사장님도 그러시고 이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국민들이 비급여 부분을 낮출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치밀한 행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과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급여 의료행위가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아마 금년 내로는 상당 부분 표준화해서 어떤 비급여 의료비는 지금 현재 각 병원에서 얼마씩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전체적으로 투명한 비급여 의료 관리체계를 하게 되고 그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체계가 투명해지면 거기에서의 본인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비급여 의료행위를 정리하고 비급여 약제를 정리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와 의료기기를 정리한 다음에 각각의 지금 현재의 가격 구조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각각 어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병원들이 받고 있는지를 고시하게 되는 법안을 19대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잘 도와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부연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그런 급여지원 외에도 대표적인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라든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제세 위원 의료 사각지대, 아까 건보 재정을 보니까 흑자가 4조가 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라든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그 돈을 어느 정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문형표 이사장님한테, 아까 김승희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한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최근에 언론 보도 아시지요?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그것 하실 건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건 제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이나 원칙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박인숙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정하는 게 아니지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답 나왔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약간 놀라운 게 거기 공공서비스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하면서 어디라고 나온 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쓰겠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맞춤형 보육으로 난리가 난 것 아시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년에 1000개씩,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1년에 1000개씩 문을 닫고 5%의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데 국공립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영리를 남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투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 재활병원 또 노인요양시설, 이 세 가지가 저 굉장히 거슬렸거든요.

노인요양시설도 이게 돈을 버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고서에 보면 이게 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채택 안 되기를 저는, 채택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개념 가지는 것조차 저는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재활병원 다 관련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문형표 이사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나라 재활병원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것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재활이 필요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좋은 재활병원을 찾으러 다른 도를 가야 되고, 시내 한 끝에서 한 끝 쪽으로 가야 되고,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또 어린이집이랑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시설도 이러한 국공립어린이집, 재활병원, 노인요양시설에는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기부한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용역에 투자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기금으로 아무래도 어떤 투자하는데 수익도 안전해야 되고 수익도 나야 되고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 차라리 백화점을 짓든가.

이것은 투자는 이런 거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공공성을 따지면 맞긴 맞지만 수익성, 안정성,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데라 이것을 혹시나 또 고려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미리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험, 성상철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여기서 다 해결할 수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려는 노력은 해야 돼요. 실손보험하고 공보험하고 원래 공보험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실손보험이 많아지면서 국민의 반 이상이 실손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보험에 내는 돈보다 실손보험에 내는 돈이 더 많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이것을 드는 게 보장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장성이 적기 때문에 비급여가 늘고. 그런데 이것은 참 윤리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게 굉장히 패러독스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약이 많이 나올수록, 새로운 기술이 발달할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보험료 1년에 올라야 이점몇 % 인가요, 물가하고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달할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지잖아요, 사각지대는 더 커지고. 그러면 이것을 큰 마스터플랜을, 이번에 이사장 하실 때 다 정부에서도 합심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양극화가 더 커지고, 지금 약만 잘 쓰면 암도 웬만하면 잘 사시잖아요. 그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 이 보장성 더 떨어지고 이거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사보험, 실손보험하고 좀 어떤 식으로 섞든가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실손보험과 저희 건강보험의 역할을 잘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과학의 발달이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맞지만 비용은 또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이것을 현명하게 해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그런 사각지대는 좀 없애거나 줄이려는 노력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없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심평원 원장님한테, 최근에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하셨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하였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것 결과도 아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저도 참 놀랐거든요. 다섯 중에 하나밖에 적정성 1등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호남·전남·전북·충청—충북·충남 합해서—강원·제주에는 1등급이 한 개가 없어요. 거기 계시는, 제주도에서 정말 중한 일 발생하면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거든요.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하실 건지 조사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으시겠지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있습니다.

○박인숙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우선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등급에서 평가가 제외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안에 전속 전문의하고 전담 전문의들이 없기 때문에……

○박인숙 위원 그 얘기도 글쎄, 전문의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사망률이 2.5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제대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아 전문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는 얼마 전에 상당 부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가 그다음에 인력기준, 시설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정비해서 운영을 했을 때 각 병원들이 또는 중환자실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도봉갑 출신 인재근입니다.

문형표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요금체계가 독특하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로인데 북부구간을 이용하면 2.6배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구간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통계로 하루 평균 9만 6000대가 통행했고요. 1년 동안 합치면 3500만 대가 통행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외곽순환도로를 국민연금 고리대로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보셨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인재근 위원 고리대로라고 비판하며 통행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였고 국토위, 기재위, 복지위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 또한 지난해 9월 4일 기금운용본부를 직접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약속했던 연구용역을 올해 1월 착수했는데, 지난 5월 25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간보고회에 서울고속도로하고 국토부만 참여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나 국회 대책위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공단에 그 이유를 물으니까 용역 계약자가 서울고속도로하고 국토부라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국민연금공단과 서울고속도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 지금이라도 해당 지자체 TF 대표나 또 국회의 TF 대표 등이 참여하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반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국민연금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8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회의가 있었던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참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저희가 바로 전날 전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회의를 참석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사정을 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제안하신 대로 추후에 그런 회의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저희로서도 적극 참여를 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저희들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통행료가 높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어떤 입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 측면에서는 기금 수익을 크게 훼손하기가 곤란할 것이고 또 통행료가 인하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고, 이 양쪽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는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국민연금의 서울고속도로 지분율이 84%입니다. 84%면 대주주지요. 대주주를 넘어서 아마 국민연금 자회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신이, 84%의 지분율을 보유한 기업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신설되어 투자 대상과 관련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기금운용지침 제17조 취지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보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폭리라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익

률 같은 것들을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투자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요.

○인재근 위원 폭리 아니에요? 아니, 시민들은 고리대로라고 하는데 폭리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통행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관계 도로공사나 이쪽 또는 민간 부분하고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양쪽의 측면을 잘 조화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리고 너무 지역 차별적이잖아요. 그것도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뭐 거기에 대해 관계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특히 북부 지역의 시민들이 그렇게 잘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2.6배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래서 필요하면 관계 지자체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가습기살균제 생산·판매 기업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혈세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되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문제가 불거진 2011년 이후 오히려 또 투자를 늘려 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검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사실을 일절 함구해 왔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국민연금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투자 축소 검토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지적하신 대로 절대액으로 보면 옥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이 엄청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현상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체 금액 대비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서 책임투자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계 기업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옥시레킷벤키저나 이러한 본사하고도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있는가, 하여튼 우리가 주시해서 리스크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승조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윤소하 위원 예.

○위원장 양승조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인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답변이 물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그리고 그 답변,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국회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월호 문제, 백남기 농민 문제, 가습기 살균 문제 이 모든 것이 이 정부하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전 국민적 공분의 상태에서 국회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답변하실 때 '포트폴리오'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돈을 누가 만듭니까? 주인은 국민이에요.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하실 때 단순히 이 부분을 행정기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특히 가습기 관련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오늘로서 정리를 하시든지 최소한 '방향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래야만이 국민적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국회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넘어가시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안이.

그래서 저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 문형표 이사장님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것이 맞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더 하더라도, 그런 측면

의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승조 문형표 이사장님, 우리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아시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사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정서적으로 그런 지적하신 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으로서는 제가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점도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투자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떤 투자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국민적 요구는 받아들여서 그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라고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투자 측면에서 주시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으시고요.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 위원 안산시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관님……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법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망하는 것을 제일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민들은 불매하고 법은 법대로 제재를 가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어떻게 이런 부도덕한 기업을 괴롭힐 수 있을까, 총체적으로 이게 뜻이 모아지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그 기업 꼭 살릴 일이 있어요? 저는 그 기업 죽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이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기금운용본부도 아마 그런 정서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우리 상임위가 의기투합해서 공분하는 국민들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심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류심사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저희들이 대면심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장애에 대한 판정이……

○김명연 위원 아니, 10% 미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래서 장애에 대한 판정이 한 번 본다고 그래서 판정할 수가 없는 거고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진료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료 결과를 보고, 서면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2등급 받아야 될 사람이 3등급 받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1명을 판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끔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보조를 받게끔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 연금공단에서 그 업무가 부하가 걸리면 다시 조직과 예산을 늘려서 더 늘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소화를 못 하겠다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직을 늘리기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가서 제대로 판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 사정만 얘기하고 안 해 주면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철저히 무시가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지적하신 대로 대면심사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2014년도 4월 달에 송국현 씨,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이분이 서류심사로 2급 받아야 되는데 3급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활동보조인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화재가 나니까 꼼짝없이 사고를 당한 거지요.

이것 이후에 보면 뇌병변장애만 27.8%로 늘었고 나머지 정신장애 0%, 자폐성 장애 0%, 기타 장애 2.2%, 이래요. 정신장애 같은 것을 대면하지 않고 정신과 의사의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고, 사실 이런 것은 위험한 것 아닌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들이 대면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보강을 하고요,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저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보건복지부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관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전직 장관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아까 서울고속도로 같은 요금 문제도 본 위원이 작년 국정감사 때 아주 세게 지적을 했던 거예요, 요금이 2.6배나 된다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언제 몇 월 달에 하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두 달이나 늦게 하고 또 지자체하고 이것을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연금공단이 참석도 별로, 여덟 번 회의했는데 세 번밖에 안 하고, 매번 국정감사에 지적당한 것도 이렇게 안 되어 가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제가 이렇게 확답을 받지 않고 적당히 답변을 받고 넘어가면 이것 분명히 국정감사 때까지 안 고쳐져요.

이래서 내년도 2017년도 사업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 진단 방법을 서류에서 대면심사로 몇 프로 이상 끌어 올리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하시고 그 세부적인 계획,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만드셔 갖고 저희 방에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성상철 이사장님, 여성들 자궁경부암 검진 이게 20세부터 무료로 검진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명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약 50%밖에 확진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명연 위원 그 검진 방법이 확진이 50%밖에 안 되는 것을 나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하는 걸 갖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확진이 잘 안 되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돈 내고 하지 50% 확률밖에 안 되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산부인과 교수들 논문에 보면 51%,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딸 데리고 검진시키러 갔는데 15만 원 돈 내고 확실하게 검진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지원책이라는 얘기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흔히 세포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검사, 이를테면 초음파라든가 이런 걸 권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아니요, 충분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태 교수님 또 이인호 교수님 이분들이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이분들이 쓴 논문 근거에 보면 전부 5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이 서비스가 조기검진을 통해서 100% 완치를 목표로 제공하는 공단의 서비스라면 확실하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지금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100% 확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좀 들어간다, 이게 공단에 너무 부담이 된다 하면 급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논의를 하셔 갖고…… 지금 확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 가지 논문에 50% 정도 수준이라고 근거를 제시했으니까 이걸 확인해서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명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서울 광진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노인학대로 인해서 실제 신고된 건만 해도 3800건인데요. 그중에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전혜숙 위원 심할 때는 성폭력도 당하시고 또 기저귀 같은 것도 아낀다고 신문지까지 깔아서 해서 욕창이 더 생기고 이런 일도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이걸 통해서 요양기관 평가를 하고 있지요,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전혜숙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은 저희들이 특별지도를 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 기관은 인력 운영이라든가……

○전혜숙 위원 아니,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그래서 인센티브……

○전혜숙 위원 원래 정해진 거고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는 모르세요?

자, 보세요. 그거 나중에 자료 빨리 좀 만드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요양기관 평가는 하셨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전혜숙 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 18대 국회의원 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요양원을 만들어 줬어요. 그게 서울요양원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평가할 때 높은 점수 받고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타 기관에 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인력 운영 면에서 잘……

○전혜숙 위원 지방자치단체 설립 기관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개인으로 갈수록 낮은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전혜숙 위원 그런데 개인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관 평가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만 요양보호사를 많이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하면서 '이게 왜 관리가 잘 안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도 도입해서 수급자 수가 급증한 데 비해서 관리할 직원 수가 제자리라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인력 때문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인력이 충분치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는 직원과 징수 업무를 관리하는 직원을 인사할 때 교체로 냅니까,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하는 직원은 따로 내고 거기서만 돌리고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소수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전혜숙 위원 인력을 탓하지 말고요, 전문인력을 키우세요. 한 명이 일당백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인력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준정부기관 중에서 1만 명이 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보세요? 준정부기관에서 제일 많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그렇습니다, 예.

○전혜숙 위원 징수 업무를 국민연금에 안 주고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데 제가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너무도 큰 기관은 사실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업무가 떨어질 때는, 제가 봐서는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힘들겠지만 장기요양 업무와 징수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서, 기관을 분리를 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전혜숙 위원 교체를 하면 업무를 잘 몰라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더 안 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전문화를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나중에 제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이나 시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요양원을 좀 많이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건강보험공단 직영으로 요양원 지금 하나로 만족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설립 배경을 생각해 보면 표준적인 서비스라든가 수가 면을……

○전혜숙 위원 나중에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전혜숙 위원 양 기관에서 인사이동 관계, 만약에 그게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사장님께서도 전문화되지 않은 인력이 비효율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국민연금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해야 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 소신이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예전부터 제가 주장한 것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전문성·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디 산하에 두려고 하십니까? 원래 공사가 나가면 기재부 산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지난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공사화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본인도 같은 소신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제가 아까 제출해 달라는 자료에도 기금운용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서 어느 기관에 취업했는가도 제출해 주시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전혜숙 위원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수익금을 이렇게 대충해 가지고, 전체를 뭉뚱그려 240조를 냈다 하는데 연도별로 세분화해서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주식으로 수익이 난 건지 현금으로 난 건지 채권으로 난 건지 그것을 저한테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리고 지금 해외투자, 예전에 환헤지로 난리 난 거 알고 계시지요, 연금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엄청난 손실을 본 건 알고 계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환헤지에 대해서……

○전혜숙 위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서 500억 손실 본 것 알고 계십니까? 그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스와프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고맙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문형표 이사장님,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가습기살균제 살상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벌써 5년 전인 2011년 무렵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고 사실은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도 관련 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해 왔음에도 올해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주로서의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은 확실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천정배 위원 지난 5월 20일자로 관련 기업들한테 무슨 공문을 보내서 사실도 확인하고 대책을 물은 것이 사실은 한 일의 전부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쩌겠다는 것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책임투자 측면도 있겠고 기업가치 측면도 있고 리스크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결정을 내려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 정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답은 여기서 하나마나 아니시겠어요? 투자 철회를 하든지 뭔가 좀 더 분명한 의지를 보이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솔직히 기술적인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업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냐 말거냐,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거냐 이런 것들을 원칙적인 방향에서 결정하

는 것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차원에서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실무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권한이나 어떤 책임이 없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중에 보고도 받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천정배 위원 무슨 사적 간섭을 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곤란한 거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의, 이게 지금 공공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투자할 때 공공성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가습기살균제 살상 사건이라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맞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정도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 범위 내에서 책임투자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를 하여튼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오늘은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다음 기회에 오시기…… 사실은 국회에 오시기 전에 좀 더 분명한, 이 문제를 더 검토하셔서 명확하게 공공성에 맞고 책임투자의 취지에 맞는 단호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적인 그런 진전이 있으면 그때 서면으로라도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국민연금이 작년 7월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로서 찬성 투표했고, 만일 그때 반대했더라면 그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을 정도의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저희들이 합병됐을 경우나 안 됐을 경우의 어떤 상황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천정배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을 자릅니다.

바로 얼마 전 5월 30일 날 서울고등법원 판결, 국민연금의 투자하고 합병 의결에 관해서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법원의 판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 판결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래서 저도 사후적이나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또 공개도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절차가 저희들이 어떤 재무적 판단에 의해서, 기업가치의 변화나 시장 변화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상세하게 보고……

○천정배 위원 아니, 옛날이야기…… 제 질문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법원, 사법부에서조차도 의혹이 있다고 공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전에 수없이 많은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에 대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공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건 이사장께서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동안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는데, 스스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시민단체에서 전임 CIO를 고발 조치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과정들을 밝히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지금 감사청구를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제가 보고받기로는 감사원의 자료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이미 다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거야 감사원의 요청에 따른 소극적인 것이고요. 이사장께서, 더구나 장관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좀 굵직한 어떤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조사의 객체만 될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잘 조사도 해 보시고 판단도 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그다음에는 그 합병에 대해서 지금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들도 반대를 권고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합병 찬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런데 규정상 전문위원회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들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회에서는 이제 좀 자기들 스스로도 그 문제를 회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침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천정배 위원 올 초에 벌써 그랬다는데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은 장관의 책임입니까? 장관이 위원장이겠지만. 이사장도 포함되어 있는 운용위원회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천정배 위원 운용위원회에서 전혀 이것을 다루지 않고 있다던데, 그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이사장께서 확실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면 충실하게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내리는 게 아니라, 운용위원회 위원 아니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위원입니다.

○천정배 위원 운용위원회 위원이시고 더구나 이사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에 버금가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행사하셔서 이렇게 전문위원회가 들러리만 서게 되는 형태의 제도를 개선하라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확실하게 하시고요. 다음번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

○위원장 양승조 천정배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송석준 위원 약제급여목록 전면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신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배경이 어떻게, 왜 하시는 건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약제코드를 과거의 코드를 새로운 코드로 전체적으로 바꿔서 7월 1일부터 새로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드의 분류가 조금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7월부터 전면 시행이 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시범사업을 하셨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송석준 위원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도 지금 현재 일단은 신코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두고 그 적응기간을 더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각 병원들이라든가 그쪽에서 청구를 하는 분들이

신코드에 대한 적응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더 유예할 생각입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 쪽에서는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처방을 하는데 투약량을 소수점, 0.004병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잘 와 닿지 않게 그렇게 해서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님, 아까 성일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건강검진 수검률이 취약계층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좀 관심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가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낮게 나타나는데요. 56.3%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빨리 좀 적응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태를 보고받으신 적은 있는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통일부라든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탈북주민들이 조기 정착할 단계에서 건강검진의 필요성도 홍보도 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적극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송석준 위원 우리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을 공단에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 통계를 보면 의사,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직 종사자 중에 지역가입자 월평균 소득금액 123만 원 이하 신고자 숫자가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의 통계가 약 2531명, 이것은 지난 5년 전에 비해서도 상당히, 약 30%가 늘어난 수치인데, 이것이 현실인가요, 아니면 소득신고에 뭔가 좀 허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소득 파악이 완전치 못해서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최대한 이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적하신 전문직 가입자의 경우에 저희들이 국세청 자료하고 항상 비교를 하고 하면서 또 모니터를,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포착하고 있는 전문직 소득이 국세청 소득보다 약 한 17%가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비교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글쎄, 저희가 직접 어떠한 조사를 하는 데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관계 부처들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그런 필요 자료들을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 어쨌든 허위신고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특히 각 소득계층 간에 위화감 또 상당히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좀 협조해서 제대로 된 소득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리고 공적연금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연계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제대로 잘 몰라서 연계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계속 강구를 하고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직업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단절되는 부분을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의무화

가 아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셨던 분이……

○송석준 위원 신고해서 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퇴직하시면 일시금을 받으셨는데 국민연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연계시키실 수 있습니다라고 즉각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잘 연계하고 공무원연금하고 잘 협조해서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적하신 대로 자동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일본도 아마 이것을 일원화하기 전에 과거 우리 같은 시스템일 때도 그것을 의무화를 해서 자동 연계될 수 있도록 아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런데 퇴직하신 분들, 직장 이동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시금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을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문형표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전직 보건복지부장관이셨습니다. 전직 보건복지부장관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바로 산하기관장으로 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제가 기억하는 바는 없습니다.

○정춘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직 장관이 산하기관장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로 오는 이런 사례는 문형표 이사장님이 처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확진환자 186명, 사망자 38명, 격리자 1만 6752명, 세계 최고 수준의 치사율 60%를 기록한 이 사태에 대해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책임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저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정춘숙 위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하직원들 1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전주로 이전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사장님이 그들에게 신뢰와 비전을 보여줬다면 그들이 남을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깊이 업무적으로도 연관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부하직원을 내버려두고 연금공단으로 오신 이사장님을 누가 신뢰하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연금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사장님을 신뢰하실까 이런 것이 제가 갖는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된 태도와 거취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에 심평원이 의료기관들로부터 삭감을 위한 삭감심사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정춘숙 위원 심평원에서는 2014년부터 경영평가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넣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이러한 지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직 그리고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 경영평가 실적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성과를 보면 절감건수 7900만 건으로 100점 만점에 35.7점 받으셨지요? 그리고 2014년에 59점 받았습니다.

이 경영평가에서 점수도 제대로 못 받을 이런 항목을 왜 넣으셨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표들을, 경영평가의 평가지표들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부와 기관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당시에는 꼭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정춘숙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 건강보험 재정절감 평가, 이 항목 기재부가 넣었다는 얘기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기재부와 협의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렇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이 재정을 깎고자 설립되어 있는 곳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설립목적이 이렇게 쓰여 있지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넣게 되면 당연히 관련 기관들의 불만과 불신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경영평가에서 심평원이 B등급 받으셨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정춘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이 원래 설립된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 목적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넣으면 당연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하셨는데, 이 성과연봉제로 가게 되면 재정절감을 위한 성과평가 항목을 채우기 위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공정한 심사가 아닌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이런 심평원은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께서 복지부장관께 심평원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달라 이렇게 직접 건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개인 성과평가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같이 상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지표를 제외하고 그것들을 그런 부작용을 낳지 않는 방향으로 고치자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그리고 성과연봉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이미 제외를 했습니다.

○정춘숙 위원 예.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건의해서 기재부장관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후의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문형표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법 제1조 국민연금의 운영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국민연금을 운영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법 제3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동의합니다.

○윤종필 위원 1988년 이후 올해까지 국민연금은 연평균 5.6%의 수익을 내며 주식 31.8%, 채권 57.3%, 대체투자 10.7%로 대체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직장인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내역 중 가장 아까운 것이 국민연금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우려가 있고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운영 목적에서 벗어난 분야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가입자인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종필 위원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공공장기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하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해 가지고 서민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 보장이나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쌈짓돈이냐 그런 비판도 있고,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께서 맡겨 주신 노후 대비 저축 자금입니다. 이것은 신탁자금으로 일반 재정자금하고는 분명히 상이한 자금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특성들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윤종필 위원 그리고 2014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의뢰해서 작성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는 용역보고서 제출 받으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받았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를 제안하고 있으며 보육·재활·노인요양시설에 투자할 경우 고용 확충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적절성이나 적합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보고서의 내용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육시설이나 재활병원, 요양병원에 대해서 공공투자를 했을 경우에 생겨나는 사회적 이익을 계산을 했다는 것이고요. 국민연금기금이 거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연금기금의 그러한 사회복지 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종필 위원 중요한 것은 2017년부터는 국민연금가입자가 점차 줄어들어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윤종필 위원 생산가능인구도 내년부터 감소한다고 하고 수급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게 되고, 연금수급률도 높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윤종필 위원 최근 문 이사장님은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올려야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실 계획이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것은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2018년에 재정계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 안정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저희가 좀 사회적 논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중요한 것은 납입자는 줄고 수령자는 급속히 늘면서 2060년에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장 적립금이 쌓여 있다 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국민 불안이 커지고 기금 운용 자체를 위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법 제102조에는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이 수익성, 안정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금운용지침에는 유동성, 독립성, 공공성도 지켜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특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혜숙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양승조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전혜숙 위원 예.

제가 계속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그런 거 쉽게 자료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좀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전혜숙 위원 나중에 준다고 하지 마시고, 저도 다음 질의에 또 활용해야 되니까요.

주시고, 연금도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간단한 것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빨리……
○위원장 양승조 자료 제출 서둘러 주시고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입니다.

한 순배 도는 데까지 이제 두 명, 저하고 강석진 위원만 남아 있습니다, 일단. 다 힘드실 텐데, 일단 일 순배는 고지가 지금 바로 저기입니다.

앞에서 몇몇 동료 위원님들이 저희 당의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의견들을 말씀하셔서 짧게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공공투자TF원으로서 짧게 몇 가지 확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당에서 이야기하는 공공투자가 국민연금법에서 이야기하는 복지사업입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예, 거기의 복지사업은 46조에, 국민연금법 46조에 있는 복지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는 국민연금법 102조에 있는 공공투자, 즉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이 청풍리조트를 운영하는 것 같은 복지사업하는 거하고는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공공투자는 전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공공투자를 하면 이게 국채를 통한 방식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만일 국채 투자로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국가부도나 마찬가지인 굉장한 국가적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례를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일본은 공공투자는 성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이 직접 리조트·부동산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게 아닐까 하는 점을 그냥 확인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상철 이사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PPT를 이따가 보여 드릴 건데요, 기재부 주관으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가 지난 3월에 발족하고 보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현재 참석을 하고 계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권미혁 위원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재부는 이것을 활용해서 자산 운용을 하고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국민건강보험이 다른 연금들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안정성·유동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수입을 보장해 주는 연금과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래서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더 많이 적립을 하면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는 그런 연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보장성 확대에는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적립금만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봐 주시면 2012년부터 매년 흑자를 기록해서 2015년에는, 저기 보이시지요? 16만 9800, 즉 17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그래프를 또 보시면요…… 아래 그래프 조금 키울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쭉 같이 가다가 2011년 이후에 이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뭐, 박근혜정부 그 뒤에는 지금 더 벌

어지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로는 건강보험 지출 평균 증가율이 반 토막이 납니다. 그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쭉 같이 가다 지금 이렇게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흑자가 17조 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까 이사장님이, 제가 '건강보험이 어떤 연금입니까?', 연금과 다른 특징을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단위로 하는 단기보험인데 건강보험을 잘못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적립금을 17조 원이나 쌓아 놓고 있으면서 그 보장성은 2009년 65%를 찍고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지금 빨간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고요.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76, 77% 정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을 감안하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지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걸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 응답자의 36.8%가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병원비 때문에 재산 처분, 전세 축소, 사채 이용을 경험한 가구가 54만 가구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 원에 이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걸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진료비 증가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렇게 누적 적립금이 쌓이게 되는 한 요인으로 되어 있고요.

보장률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의학 발전에 따라서 비급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손보험이 있어서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또 이용하게 되고 의료기관에서는 또 어떤 도덕적 해이도 좀 있어서 과잉진료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사장님, 제가 1분 남아서 다음 걸 좀 해야 돼서……

저희 국회에서 저희는, 물론 지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보장성을 높이기를 강력히 주장을 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이 의견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시간 허락하는 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엄청 돈이 많이 쌓여 가는데 기초생활, 박근혜정부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원되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2014년에는 34만 명이었는데 2016년 5월에 4만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맞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권미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없애라고 지시한 사회보장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대상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21만 세대인데 2인 가구로 계산하면 42만 명, 4인 가구로 계산하면 84만 명이 됩니다.

이것도 슬라이드 잠깐 있지요?

저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이사장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누적 적립금을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방안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조 권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차 질의,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 새누리당 강석진 위원입니다.

심평원장님께 항암신약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항암신약이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OECD 국가 평균은 245일로 돼 있고요. 비해서 우리 한국은 601일이 소요된다고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복지부가, 심평원이 노력을 해서 심평원이 법정 평가기간을 150에서 12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한 걸로, 지난 2월 달의 발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한 데 보면 제약사의 약가 접수 후에 240일 이내 해 놓고 약가 신청 시 약제평가위원회 평가기간이 120일, 건보공단과 제약사의 협상이 6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60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40일 이내 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600일 평균으로 길어지는 게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문제가 돼서 그런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각각 문제가 돼 있긴 합니다마는 모든 분야를 조금 조금씩 줄이려는 노력들을 통해서 비교적 조금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강석진 위원 그렇다면 물론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45일하고 600일은 너무 차이가 있고, 이거 보건복지부장관 결정고시는 240일로 돼 있는데 600일이라면 한 2.5배나 된단 말이에요. 뭐 한 240일인데 300일이다, 350일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많이 길어지는 게 어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근본적인 가장 원인이 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지금 현재 평균은 약 11개월, 33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하는 제도들을 계속해서 축소·단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하고 있습니다. 건정심의 심의하고 장관 고시하는 부분도 60일에서 한 30일 정도로 하고 제약사의 자료 보완, 그다음 비용효과성을 제약사가 제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해서 몇 번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약사가 미리 이해를 하고 최근 들어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제출하는 경향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강석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평균 330일 정도로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럼 601일이라는 통계치가 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개선이 돼서 그렇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지금 현재의 통계자료로는 330일, 1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예, 계속 노력해서 그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노력의 일부 결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석진 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뭐 120일로 고시를, 150일을 120일로 줄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또 현장에 있는 암환자분들은 체감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좀 없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아주 그 시기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신약을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병도 문제지만 어떤 경제적 부담 이런 게 아주 크기 때문에 어떻게 최대한 정말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방법들은 없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약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서 심평원 평가기간을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했고 이 이외에도 신약에 있어서의 허가평가연계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약 30~60일을 줄였고 약가협상면제제도를 실시, 신설을 해서 60일 정도를 또 단축한 바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마 아까 말씀해 주셨던 600일에서 330일 정도, 11개월로 주는 데 기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많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미리 신청할 때 신청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그다음에 또다시 반려하고 다시 제출하는 것들을 늘리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희귀의약품에 대해서, 항암제뿐만 아니라 희귀의약품의 제기에 대해서 허가평가연계제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등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뭐 잘못됐을 경우의 아마 부작용 같은 것을 고려해서 꼼꼼하게 하시느라고 그럴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은 항상 좀 다급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성상철 이사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 이 문제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그 문제점이 아주 크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날로 지능화되고 또 대형화돼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4개월 전에 그 전담기관을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4개월이 지났는데 성과가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제대로 그걸 좀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4개월 전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기획조사도 하고 또 사법기관과 수사 공조 강화를 해서 약 2750억 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1조 원이 넘는 체납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활동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사무장병원의 불법사례에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본부에서는 지방경찰청과 양해각서 체결도 하고 수사 공조를 해서 올 하반기에는 사무장병원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이거는 좀 은밀하게 되고 막 덮여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뭐 신고를 한다든가 이래야 될 텐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공익신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그리고 홍보활동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성상철 이사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위원장 양승조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요, 치과 임플란트하고 틀니 급여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위원장 양승조 또 보건복지부도 그런 식으로 또 광고를 해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전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개 되는 거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2개까지 지금……

○위원장 양승조 문제는 이렇게 광고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아마도 7월 1일부터 어르신들은 왜 2개밖에 안 되냐 엄청난 항의를 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 이걸 정확하게 광고하고 보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또 보니까, 보고서 보니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의료봉사라든가 건강보험 공부방을 운영한다든가 집수리 봉사한다든가 그건 정말 잘하시는 거 같아요.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연 얼마 정도 되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저희 공단에서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하는 뜻에서 저를 위시해서 공단 직원들이 염출을 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한 13억 내지 한 15억……

○위원장 양승조 13억 정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저는 다른 기관도 좀 이것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지금 납부예외자가 44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그런데 가입자 수가 한 2155만 명이면 한 20% 정도가 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후소득 대비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중에 많은 분들이……

○위원장 양승조 이 문제가 하루 이틀된 건 아니지만 이런 440만 명에 대한 납부예외자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먼저 저희들이 납부예외자가 500만 명 이상으로 올랐었습니다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적인 지금 방안들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의 정보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발굴을 해 내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험료 지원 사업을 드리면서, 또

이번에 그걸 좀 더 개선해 가지고 좀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떤 다각적인 방법들을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위원장 양승조 이분들은 국가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양승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위원장 양승조 지금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했을 때 한 46% 정도 되는 거지요, 현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현재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28년 가면 40%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위원장 양승조 그러면 실질적으로 푼돈연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현재 받는 거는 평균 한 35만 원이 되지 않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총 평균 한 3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그런데 40년 정도 가입해서 40년을 납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87년도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이 문제가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연금이 노후세대에게 어떤 기본적인 대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부담해서라도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이사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소득대체율 수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OECD 평균이 한 4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낮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해서요, 지금 예를 들어 100만 원 소득자다 그러면 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니고 70%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낮아서 지금 문제냐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급여 수준 자체가 아니라 가입기간이 짧아서, 그래서 지금 급여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 1연금을 지향하면서 추진하는 정책들 모든 것들이, 이번에 실업크레딧제도도 도입했고 또 전업주부 추납제도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가입기간을 어떻게든 늘려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하지만 가입기간을 40년 채우는 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요. 다른 나라 OECD 국가의 평균 수급액, 연금 월액 이것도 한번 통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위원장 양승조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오제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양승조 예,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 위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서…… 우리 이사장님, 연계시켜서 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연금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깎기로 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동시 수급자가 지금 148만 명,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이 거기에 해당돼서 기초연금을 깎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오제세 위원 대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오제세 위원 그래서 그 내역과 또 깎이는 액수별로 인원과 금액,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 자료 저한테도 주십시오.

○위원장 양승조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계셔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박인숙 간사님과, 간사님 요청으로 4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국민의당 간사 김광수 위원입니다.

4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문형표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광수 위원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작년 2월 5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발주하셨지요? 맡기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작년에……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김광수 위원 물론 계실 때 한 것은 아닌데, 납품받았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 내용을 보고받고 토론회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결국은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의 공사 설립 용역이에요. 내용은 거창하게 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인데 공사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걸로 답변드리면 공사화보다도 하여튼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결과로 기금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사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공사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지만……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공사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건 제가 집행기관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집행하는 정책적 결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공사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로 한다라고 하는 국민연금법 27조를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유효하게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이견도 갖고 있지 않고요.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늦어져요? 원래 올해 8월인데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내년 2월로 늦췄는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동절기에 공사가 잠깐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올해 11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별히 공기 지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진 거지 공사화와는 관련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물론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년 2월에 이전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강보험공단이사장님 지금 국가 건강검진 체계상으로 보면 20~30대의 전업주부들이 좀 소외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광수 위원 특히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도 똑같은데 20~30대 전업주부가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충북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2030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해서 올해 예산 11억 가지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들 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에 4대 중증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아주 젊은 세대로 많이 발병률이 높아가기도 하고 또 20~30대 가임여성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좀 수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개선방안이 없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검진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지부하고도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성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광수 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문형표 이사장님, 지금 제 보좌관이 서류를 하나 드렸어요. 그게 2004년도 11월 달에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김근태 장관이 국민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연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들이 그때도 꽤 세게 있었거든요. 경제부처에서 연기금이 많이 탐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든지 그걸 좀 이렇게 독립시켜서 사회 경제를 활성화시켜 내는 데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되게 무분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던 아주 복잡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아주 극한 수단을 채택을 한 겁니다. 조율을 하다가, 경제부처하고 조율하다 잘 안 돼서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드리는 방식들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 절절해요. '국민연금은 5000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다. 알토란처럼 적금을 넣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후일을 대비해서 곳간에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국민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그 용처에 대해서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뒤쪽을 보시면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는 연금 운용의 기본원칙 즉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 원칙을 확실히 견지하겠다. 이 3대 원칙의 순서를 정하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그 토대 위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논할 수 있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투자일수록 3대 기본원칙을 충실히 견지하겠다.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을 깨트린다는 말이 있다. 애초에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래서 경제부처하고 사회부처의 장관이 좀 세게 붙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별로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총리가 총리 주재로 부처의 차관들을 다 소집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들을 마련하면서 지금의 기금운용원칙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굳건해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저는 이사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전제를 달았지만 '공사화에 찬성합니다' 이런 말씀 주신 걸 보고서 국민연금, 물론 바라보는 각도에 좀 다를 수 있을 건데 안정성이 최우선인데 이것을 공사화시키게 되었을 때 과연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일까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당 일각에서 총선 공약으로, 일각은 아닙니다. 저희 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수익성 이런 부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공공 장기저리 임대주택, 그리고 보육시설 아까 말씀 주시니까, '확충'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 신설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던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곳에 국공채 개념을 도입해서 연 5%의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이제 복지부와 상의를 할 텐데요 야당의 주장이라고 해서 정파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공공성, 수익성들을 동시에 좇기 위한 우리 내부의 고민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열어 놓고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내부에도 그런 연구보고서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다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형국인데 그런 것에 대한 간략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위원님 좋은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정파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공사화의 문제하고 기금의 안정성 문제를 연결하셔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공사화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520조의 기금을 어떻게 잘 보호하느

냐 이것은, 제가 뭐 경제부처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잘…… 하여튼 노후자금,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의 노후 저축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든 잘 관리해 드리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떤 정책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벽이 허물어질까 봐 그것들을 지켜 나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전문성과 독립성을 좀 보장해 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사화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그 고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뭐 길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더 고민을 갖고 이후의 과정 속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융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지요? 금융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융투자를 늘리면 손실확률이 급증합니다, 그렇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금운용수익률을 목표수익률보다 1% 높이면 변동성이 세 배 급증하고 연간 손실확률이 200배가 폭증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이 연평균 6% 정도의 운용수익을 올렸지요. 지금 그런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지금 그렇게 방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채권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뉴스테이에 투자는 아무래도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높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험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뉴스테이의 평균 수익률을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임대주택 평균 수익률을 7.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금융투자라든가 대체투자라든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의 원칙인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따져 볼 때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스웨덴의 경우에 60·70년대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투자를 해서 지금 4분의 1 정도, 총 주택수가 300만 호 정도였는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의 공공단체나 건강보험조합 사업주에게 융자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로자 주택이나 병원 등을 건설했지요. 지금 이런 예들은 굉장히 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부장관이나 이사장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진지하게 하셔서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우리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주택 문제의 이 주거불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공투자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지금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지요, 그렇지요? 62%고 그리고 보험료 부과체계, 이 두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 두 축을.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부과체계 실무추진지원단 구성해서 복지부 업무 지원하고 있고……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고서가 다? 그런데 이것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장관한테도 말씀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 자료들을 좀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복지부에 제출한 시뮬레이션 자료들 있지요,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상희 위원 그 자료들을 그냥 숨기지 말고 다 같이 이것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복지부와 국민보험공단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 이것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엉터리로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고지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상희 위원 예상 수입액 산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제대로 산정하고 제대로 국고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사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장률을 높이고 그리고 부과체계를 공정하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적극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는 솔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딱 10분 만 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승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저는 어제 복지부 질의가 좀 남았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위원장 양승조 해당 국장님, 복지부에서 나오신 분!

○김순례 위원 어떤 분이시든지……

○위원장 양승조 복지국장님 안 나오셨나요?

○김순례 위원 시간 가요, 빨리 나오세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강도태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제가 온 국민이 들끓고 있는 안전성의 위해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도 제가 질의드릴 겁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국회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주장했던 CMIT와 MIT에 대한, 인체에 안전하다는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발표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게 나왔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강도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순례 위원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강도태 위원님, 제가 그 담당 소관 국장이 아니라서, 질병관리본부인데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자, 그럼 그냥 들으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특히 폐섬유화를 근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부를 가리겠다는 발상도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독성물질의 피해 여부를 가리는 과학적인 방법이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역학조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떤 신뢰성을 좀 하락시키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이런 제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동물실험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그렇게 해내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것, 진료의 사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원을 했던 그런 사실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 확인을 통해서 좀 접근도 충분한, 분류하고 채집해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자료를 활용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처음에 1차, 2차, 3차 진료를 하면서 폐석회화증에, 가습기살균제의 폐단이 지금 보고가 됐지만 그 외에도 다른 독성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각계 연구계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역학조사를 건강보험 쪽에서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 진료내역이라든가 건강검진 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김순례 위원 예, 한번 좀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김순례 위원 그래서 약사법 제2조와 3조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살균제, 살충제, 이와 같은 사용 제제가 의약외품으로 식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가 감염병과는 무관하다고 그렇게 손을 놓아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에 많은 조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에 그래서 유해물질에 대한 언론 기사가 많이 지금 마구 퍼뜨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를 비롯해서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등이 안전하다라고…… 조사 중이다, 소관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광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조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면도로 평가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유관기관에서 그것을 밝혀내는 데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같이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남인순 위원입니다.

건보공단 이사장님, 지금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문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합의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상에 합의하신 분들 이분들은 건보에서 여러 가지, 사실 폐손상만이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유관 질병들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상에 합의한 사람들은 건보재정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급여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 문제를 그동안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방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한 사람들은 건보에서 급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방안을 꼭 강구를 해 주시고요. 이게 폐손상 질병만이 아니라 너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미 지금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남인순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보공단에서 정부와 의논을 하셔서 반드시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일부라도 어쨌든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통 치과 외래진료를 하면 본인부담률이 30%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틀니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49.6%라고 하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기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사

실은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사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분들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남인순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심평원 원장님, 틀니하고 임플란트 수가가 좀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수가가 지금 임플란트 1개당 의원급 관행가가 평균 139~180만 원, 틀니가 약 136~144만 원으로 조사된 바가 있는데요. 수가가 관행가의 한 60~8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적정 수가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지금 수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료대와 행위료를 같이 산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하고 비급여가 일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제조와 수입업체, 요양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일 상한가를 만드는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시점을 시작으로 벌써 치료재료 유통 실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들을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상한 금액을 재조정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료재료의 유통과정은, 약은 지금 유통과정이 완벽하게 드러나서 투명하게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치료재료는 그것들이 지금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서면으로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남인순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김성숙 공단 소장님한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연금이 앞으로 2060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데 이때 출산율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측치를 몇 %로 한 거지요?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장 김성숙 저희는 장기적으로 1.4% 정도를 유지하는 것……

○남인순 위원 1.4로 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장 김성숙 예.

○남인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1.5나 1.6으로 올라가면 기금 소진 시점을 언제로 잡습니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장 김성숙 저희가 지난번에 3차 재정계산에서 한 1.6~1.8도 해 봤는데요 그러면 한 1, 2년 미뤄집니다.

○남인순 위원 1, 2년밖에 안 미뤄져요?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장 김성숙 예, 그것은 아주 초장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칩니다, 출산율 제고는.

○남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저출산기본계획에 출산율을 1.5~1.8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1.8까지 올라가면 몇 년 연기됩니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장 김성숙 1.8까지 해도,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도 소득활동을 하는 게 한 서른 살 지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50년쯤 이후에야 보험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기금 소진 시점 자체는 그렇게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것 관련한 연관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장 김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승조 남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두 공단 이사장님께 좀 걱정하는 입장에서 위해 드리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한 성과연봉제요, 그것 불법입니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해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노동법인 노동관계법 벌칙 92조 거기에 적용되면 두 분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법적으로 다투면.

아니, 공공기관의 수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이것은 무효니까 노조와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설명을 하실 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수자는 다르게 얼마를 더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직위 재부여 그리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가능,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설명할 때 이것 뺐어요, 문제가 되어서. 그것 잘 아시고요. 노조와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 문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 얼마 전 공단 직원이 좀 불행한 일을 당하셨지요. 6월 3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하여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라고 그러지요, 근평 사업이라고 그러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렇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런데 이게 2인 1조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본래 그렇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원칙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인 1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수급자 여러 부분들을 대면으로 하면서 평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무수한 스트레스와, 이건 감정적 노동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러지 말고 2인 1조로 해라, 그리고 당사자들 교육해서 2인 1조로 꼭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 인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이것도 노동조합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정 인력을 보충을 하는 방안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이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아파요.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 입원진료비만큼은 총 한 6조 7000억의 그런 비용 중에서 5152억 원이면 0세~15세까지, 어제 보건복지부장관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수긍하셨는데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이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후의 부분들에 밑돌을 튼튼히 놓는 과정이거든요. 이것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건보의 지금 누적 흑자가 16조 9800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평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한 안을 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합리적인 수가 그리고 급여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잡으셨습니다. 오늘도 급여, 비급여 그리고 또 수가에 대한 개선, 이런 문제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되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강남역 10번 출구 묻지 마 살인사건 기억하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김승희 위원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 기억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김승희 위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를 남겼습니다, 그 두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결과 이 원인이 정신분열증 환자, 다시 말해서 조현증 환자가 묻지 마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원인이 나왔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입장에서 문제의식 가졌을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어떤 문제의식 가지셨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현재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체계 그다음에 의료급여 체계를 통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승희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수가가 얼마입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1일당 2700원 정도입니다.

○김승희 위원 2770원이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건강보험 환자는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고 의료급여 환자는 정액 수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됐습니다. 그 조현병 치료약 한 알이 3000원입니다. 그 한 알 약값도 안 되는 이런 금액 가지고 전문의 상담 받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의사들조차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맞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입원 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 환자는 요양급여기관의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맞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정신과를 제외한 일반 진료과에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간에 차이가 없는데 왜 유독 정신과의 경우에만 이렇게 수가 차이를 두는 거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의료급여의 경우 국가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들에 대한 몇 번의 인상과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원장님,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짚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입원 수가가 95%가 되고 12개월이 지나면 90%로 이렇게 줄게 됩니다. 일반 진료과하고 정신과하고 이렇게 보면 차별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김승희 위원 그리고 또 6개월 지나면 이렇게 입원 수가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3개월 단위로 세분화해서 장기 입원환자의 수가는 더 낮추는 그런 안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막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치료가 필요한 이런 환자를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수가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 내용을, 그리고 어떤 추진 계획이 있고 어떻게 세부 추진 방법을 할 것인지 실행 계획을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박인숙 위원님.

○박인숙 위원 박인숙입니다.

저는 원래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록에 남기려고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심평원장님, 보험수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으시잖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박인숙 위원 메르스 때 많이 사망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환자들이 많이 생존을 하신 것은 두 가지라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환자 관리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에크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에크모 달면 다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50% 이상이 살아요.

그리고 중환자 관리도 이참에 굉장히 병원들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중환자 관리가 신생아 중환자실은 하도 조산, 일찍 태어난 아이들, 저체중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떠드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일반 중환자실은 굉장히 아직도 열악해서 1

년에 한 1억씩 적자를 보잖아요. 거의 병원이 자선사업을 하듯이 하는데 그것도 같이 좋아져야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환자 평가에서 1등급이 우리나라 전국에 없는 데가 제주도·충청도·강원도·호남…… 9개 중에 8개가 수도권이에요. 서울에 7개고 경기도에 하나고 경상도에 하나고, 이러니까 이런 불평등이 또 굉장히 심한 양극화, 또 그런 불평등도 되니까 중환자…… 아까 보험공단의 돈도 조금 여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생각하셔서 중환자 관리에 특별히 신경은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옛날에도 그랬는데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무슨 새로운 시술을 하다가 실패하면 안 줘요. 지금도 에크모가 거의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조건을 많이 까다롭게 했는데, 사실 탁 걸면서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 다 살리려고 하는 건데 실패를 하면 그냥 병원에서 너네가 손해를 흡수해라 이렇게 해 버리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조금 완화를 해 주시고.

아직도 많이,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좀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이에요. 사실 환자보호자나 본인들은 50% 아니라 10%만 되도 다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다른 데서 하더라도, 이건 보장성 강화 측면이거든요. 그런 거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앞으로요. 그런 데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예.

○박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손명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반적인 규제에 있어서의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예전에 2008년도 9월 우리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서, 국민연금이 주택모기지에 잘못 투자해서 500억 손실 봤던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전문가시잖아요. 오래 계셨잖아요. 장관 하시다 다 잊어 버렸어요?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이게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없어졌느냐 하면, 지금도 해외 투자 운용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계약서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 나중에 제출하세요.

그때도 국민연금에서는 해외 투자 운용사에 대고 지금, 계속 그 당시 페니메이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들으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프레디맥이라는 이런 채권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환율 때문에 더 망하고 있다, 투자하지 마라, 국민연금이 경고를 했음에도 이 전문가라는 해외투자 운용사들이 이상하게 더 많이 투자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용공사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함부로 독립시켜서는 안 되겠다…… 연금이 복지에 투자할 수 있고, 함부로 전문가들한테만 맡겨 놓으니까 이렇게 운용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 공사화가 못 된 겁니다.

장관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소신 발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언제 일이냐면 제가 그 당시 질문했던 질의서가 있어요. 속기록 찾아보세요. 그래서 박해춘 이사장이 그것 때문에 그때 상당히 곤란하고 사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이 기금을 할 때 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해서 우리 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물론입니다.

○전혜숙 위원 그리고 이 국민연금의 기금은 가급적 우리 국민의 저출산·고령화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

○전혜숙 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혜숙 위원 아니, 글쎄,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사는 데도 저는 착한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 공공투자라든가 어린아이들이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우리 복지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 채권을 살 때 꼬리표를 달고 사서, 거기 국민연금이 산 채권은 그쪽의 채권을 사겠다 하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복지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재정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혜숙 위원 아니요, 장관님! 장관이 아니고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전혜숙 위원 장관에 실패하고 연금 이사장이 되셨으면 연금은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아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집행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기금이 일반재정자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뭐 위원님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혜숙 위원 그럼 국민연금, 채권을 사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채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전혜숙 위원 그래서 가급적 아무 채권이나 사지 말고 우리 복지에 쓸 수 있는 채권의 꼬리표를 착한 채권으로 해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그것이 뭐……

○전혜숙 위원 재투자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아니요, 거기 수익성이나 어떤 안정성 이런 것에 다 부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그것이 국민연금기금……

○전혜숙 위원 아니, 국가채권이 불안정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혜숙 위원 그래서 국가채권을 사라는 거지요. 아무 채권이나 사라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러한 결정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금 결정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율성은 좀 존중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최도자 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유형을 연구해서 2015년부터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으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최도자 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아주 매우 저조합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FDS를 통해서 1만 1327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위험 기관을 추출했고요. 이 중 부당위험 점수가 높은 상위 150개 기관에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사의뢰가 실시된 기관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대상 150개 기관 중 절반은 부당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당청구액 상위 75번째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단돈 1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장기요양 부당청구를 시스템을 통해 방지하겠다는 FDS는 그 효과를 신뢰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청구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유형화해야 하는데 단순히 해당 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더 많다 하면 부당위험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사장님, 자체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외부에 맡겨서라도 전면적인 시스템 재진단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급여 규모와 시스템 구축 시점이 좀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좀 성과

가 미미하니까 신규 부당가능모형을 개발·분석해서 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현장의 활용성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법령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불법을 저지른 부당위험기관으로 몰려서 기획현지조사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공단의 시스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재검토하셔서 본 위원 사무실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성상철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 예방적 건강관리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방적 건강관리의 시작점이 건강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건강검진 대상 중에서 피부양자와 세대원은 40세 이상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피부양자와 세대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39살이 돼도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것이지요.

저는 이 연령을 30세로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서는 35세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사실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현재 30대 건강보험 보장률이 50.3%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전체 보장률 63.2%하고 비교하면 무려 13%나 낮습니다.

예방은 건강할, 그러니까 건강은…… 30세에게는 사실은 건강검진 안 해 주고 보장률도 굉장히 낮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지금 이 30대 청년들은 12.5%라고 하는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34%까지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지요. 그런데 국가가 이러한 30대 청년들의 건강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또한 30대부터 건강검진을 적용하는 것은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30대 피부양자 156만 명 중에서 79%인 123만 명이 여성이고요. 30대 세대원 108명 중에서 60%인 65만 명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30대 여성의 보장성은 48%로 53.5%인 남성보다 5.5p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건강예방 관리 활성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보험 일반검진을 30세부터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저도 그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개 25세 내지 27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로 이렇게 낮추는 거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30세부터 건강검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보면 평가대상자 3623개 시설 중에서 A등급은 14.1%, D와 E등급은 40.6%입니다. 즉 장기요양시설 10개 중에서 4개는 불량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도 찾아봤더니 지난 5년간 무려 717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적정 비율, 이러한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인프라를 늘리려고 하는 데 더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질 관리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불량시설을 좀 퇴출하고 질 좋은 공공요양시설을 늘리는 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정춘숙 위원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보험자인 건강공단이 앞장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대책을 만드셔서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건보공단이 대전지역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사옥 신축에 있어 가지고 부지의 위치나 장래 발전 가능성, 매입 가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총 9명 중에 외부위원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몇 명이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2명입니다.

○윤종필 위원 2명이고.

내부위원은 몇 명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7명으로 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 내부직원이 77%에 육박하는데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민원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부위원들이 비교적 잘 숙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외부 인원 중의 1명도 해당 지자체의 건축 관련 부서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객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부지선정위원회는 내부적 통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국민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단에서 지난 5년간 사옥을 매년 7개 이상을 신축하고 있고 편성된 예산만도 154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단의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내·외부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집행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위원들을 좀 더 모시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미혁 위원 또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아까 윤소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월 3일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한 분이 자살하셨는데, 수급자에 대한 평가업무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거 이사장님 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예, 중요한 업무입니다.

○권미혁 위원 저도 이게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업무 특성상 직원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콜중독자 등 위험군 환자가 많고 이 평가 결과가 수급자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싸우기도 하고 또 실지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면업무지침에 의하면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고. 이번 사례 역시 2명이 만일 출장을 나갔다면 이 수급자가 받은 부분에 대한, 뭐 약간 성추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관계를 좀 객관적이고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기 때문에 고인이 홀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건 발생 후에 연금공단에서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대면업무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내놨고 그리고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2인 1조 출장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인 1조 출장이 실현되기 위해서 인력 충원 계획은 없어요. 물론 이게 아마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못 하시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실제로 107개 지사에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이 178명입니다. 그래서 지사당

1.66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지난 5월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 발생한 사망 사건 역시 이게 2인 1조 업무수행이라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 인력의 충원이 중요하고요, 더불어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충원이 안 이루어지는 동안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산콜센터 직원이 성희롱이나 폭언 등 민원인에게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면 직접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고요.

다행히 제가 질의한다는 걸 알고 공단의 업무 이사께서 애도를 표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메일을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하시다 아마 끊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의원실로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돕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 보고드리고 또 인력 보강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혁 위원 42초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김승희 위원 아니, 간단하게……

○위원장 양승조 우리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한 부분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일본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세하게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사례를 갖다가 언급을 한 거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있는 전문가가 평가한 거고요. 그 내용은 61년도에 연금복지사업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사업단을 통해서 복지사업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를 추진했고 98년도 기준으로 연금 적립금의 한 7% 정도를 이런 복지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0년대에 일본에 부동산시장이 버블로 인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감소됐고 또 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일본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재정의 불안정이 심화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접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거를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심도 있게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의 전문성이 많이 발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광수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박인숙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없으시지요?

소상하게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6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상철 이사장님, 문형표 이사장님, 손명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강 석 진	권 미 혁	기 동 민	김 광 수
김 명 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순 례
김 승 희	남 인 순	박 인 숙	성 일 종
송 석 준	양 승 조	오 제 세	윤 소 하
윤 종 필	인 재 근	전 혜 숙	정 춘 숙
천 정 배	최 도 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 승 기
전문위원	이 상 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 상 철
상임감사	이 성 록
기획상임이사	김 필 권
총무상임이사	설 정 곤
징수상임이사	박 경 순
급여상임이사	장 미 승
장기요양상임이사	김 태 백
일산병원장	강 중 구
기획조정본부장	임 재 룡
재정관리실장	박 태 근
직무안정화추진단장	홍 성 유
자격부과실장	김 화 섭
급여보장실장	장 수 목
급여관리실장	김 홍 찬
건강증진실장	오 동 석
요양운영실장	신 일 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 형 표
감사	조 성 국
기획이사	이 원 희
업무이사	김 무 용
국민연금연구원장	김 성 숙
기획조정실장	최 기 영
가입지원실장	이 래 광
연금급여실장	마 희 열
노후준비지원실장	이 문 연
장애인지원실장	유 금 상
운용지원실장	김 응 환
운용전략실장	이 윤 표
주식운용실장	조 인 식
채권운용실장	안 태 일
대체투자실장	유 상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손 명 세
상임감사	서 정 숙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 종 철
기획상임이사	윤 석 준
개발상임이사	황 의 동
업무상임이사	변 성 애
심사평가연구소장	이 윤 태
기획조정실장	송 재 동
인재경영실장	박 인 범
의료수가실장	강 희 정
급여기준실장	지 영 건
치료재료실장	유 미 영
약제관리실장	조 정 숙
심사운영실장	이 동 준
평가1실장	이 기 성
의료자원실장	정 동 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강 도 태
연금정책국장	박 인 석